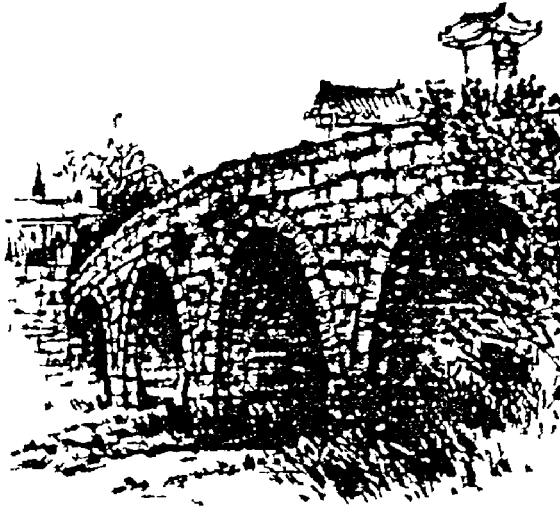


Ⅱ. 안양의 연혁



제1절 안양의 시대별 연혁

1 삼국시대

우리나라 중앙을 횡(橫)으로 관류(貫流)하는 한강을 끼고 그 남방에 위치한 안양 지방은 아득한 옛날부터 선인들의 생활터전이요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1989년 평촌동의 귀인(貴仁) 신말(新村) 갈미(葛山)등지에서 발견된 지석묘(支石墓)등은 안양이 이미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우리 조상들의 집단생활터가 되어 왔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친 집단생활은 계속되어 점차 선진적인 발전을 가져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평촌지구 개발전 지석묘 모습(1990년경)○



안양지역이 문헌자료에 처음 기록된 것은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소위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 경 이후이다. 국가의 영역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강 이남인 안양지역은 대개 진국(辰國)의 영역에 속한 여러 부족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 지역은 한(漢)의 발달된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일찍부터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여 후에 이곳을 중심으로 백제가 흥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 후 진국이 삼한(三韓)으로 분리되면서 안양지역은 마한(馬韓)의 영토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의 건국시기와 그 시조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설화에 따르면 북부여(北扶餘)에서 남하하며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의 아들인 비류(沸流)와 그 아우인 온조(溫祚)가 개수(俱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한산(漢山)에 이르러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10명의 신하의 보필을 받으면서 국가 이름을 '십제(十濟)'라 칭했고 비류는 바닷가에 정착키 위해 무리를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들어갔으나 그곳 땅이 습하고 소금기가 있어 되돌아와 죽자 미추홀의 백성들은 위례성에 모이게 되어 국가명을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는 한강 남쪽을 돌아보고 땅이 기름지므로 백성들을 옮긴 후 이듬해에 도읍을 광주(廣川)로 옮기었다. 그러나 기원 후 3세기 중엽 낙랑

과 대방의 침략을 받은 한강유역의 여러 성읍국가들은 보다 큰 연맹체를 갖추어 이에 대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었으니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백제였다. 이리하여 3세기 말에 이르러 백제는 한강유역 일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근초고왕 24년(369)에는 마한을 완전히 병합(이설도 있음)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영토의 확장을 꾀하던 고구려는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남쪽의 백제를 쳐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진출하여 한강 연안의 여러 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다.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지역은 인전부근의 미추성(彌鄒城)과 서울 동쪽 한강연안의 아자성 등은 도합하여 대략 58성 700촌락이었다. 광개토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長壽王)은 동왕 63년(475)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백제의 수도 한산을 함락시켰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가 부득이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되자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리하여 안양지역은 고구려의 남부에 해당되어 안양시 박단1동 박달2동 석수1동 ~ 석수3동을 비롯하여 광명시의 지역 중 옥길동을 제외한 전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역 중 여의도동을 제외한 전지역, 동작구의 지역 중 상도동과 신대방동지역, 관악구의 지역 중 남현동을 제외한 전지역, 구로구의 지역 중 가리봉동 구로동 신도림동 금전구의 독산동 시흥동 가산동 등의 전지역을 '영벌노현(仍伐奴縣)'이라 칭하고 안양시의 안양1동 ~ 안양9동 호계1동 ~ 호계3동 비산1동 ~ 비산3동 평촌동 관양1동 관양2동 지역과 군포시 전역, 과천시 전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동작구 중 노량진동 본동 사당동(남현동 일부지역 제외), 흑석동 등의 전지역, 서초구 중 내곡동 도곡동 염곡동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율목군(栗木郡) 또는 동사현'이라 칭했다.

그러나 백제는 성왕(聖王) 29년(551) 신라와 연합군을 만들어 6개 군을 회복했으나 성왕 31년(553)에 다시 신라 진흥왕에게 빼앗겨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 문무왕 8년(668)에 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행정구역 제도 역시 신라의 제도로 바꾸기 시작했다. 즉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조직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의 신라가 당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한 것은 문무왕 16년(676)이었으나 전국을 9주(九州)로 나눈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인 신문왕 5년(685)이었다. 9주란 옛 백제 땅에 3개주, 신라와 가야 땅에 3개주, 고구려 땅에 3개주를 말하는데 이때의 안양지역은 한산주(漢山川)에 속했다. 9주 밑에 두는 군(郡) 현(縣)은 제 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일대 개혁을 보아 종전의 지명이 우리

말에 한자를 빌어서 이두나 향가식 문자이던 것을 모든 지명을 한자의 이자(二字)식으로 고쳐 부르게 되어 지명의 획기적인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잉별 노현은 '곡양현(穀壤縣)'으로 율목군은 '율진군(栗津郡)'으로 각각 개칭되었는데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명	속 군 명	속 현 명
漢 川	栗木郡(고구려)→栗津郡(신라) 仍伎奴縣(고구려)→穀壤縣(신라)	穀壤縣 孔岩縣 邵城縣

* 자료 『삼국사기』 권35

위의 표 중 한주(漢川)는 주치(川治)를 광주에 두고 그 밑에 군 현을 두어 도독(都督)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곡양(穀壤) 공암(孔巖) 소성(邵城)의 3개현이 모두 율진군의 영현이 된 것인데 공암현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이며 소성은 인천광역시를 일컫는데 지금의 안양시를 비롯하여 광명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와 인천광역시에 이르는 제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는 과진의 영역이었거나 영현이었던 것이다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도(骨品制度)의 모순이 극에 달해 이로 말미암아 진골귀족(眞骨貴族)의 분열 상극현상과 육두품(六頭品) 세력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어 각 고을에서는 농민들의 봉기가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농민들을 거느리는 두목이 원주의 양길(梁吉 良吉) 전주의 견훤(甄萱 ?-936) 죽산의 기훤(箕萱) 양길의 부하 궁예(弓裔 ?-918) 등인데 그 중에 안양지방은 송악(松岳)을 근거지로 삼아 후고구려(後高句麗)를 세운 궁예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궁예의 부하인 왕건(王建)은 눈부신 전공을 세워 자신의 지지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다 효공왕 4년(900)에는 궁예의 명령을 받아 경기도의 양성(남양) 광주 곡양(시흥) 율진(과천) 등의 제현을 평정하기 위하여 삼성산을 지나가다 능정(能正)이란 늙은 중을 만난 후 안양사(安養寺)를 장건했는데 이것이 안양시 명칭의 기원이 된다

2 고려시대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지 22년이 되는 동왕 23년(940)에

경덕왕16년(757) 이래로 사용해 온 전국의 모든 주(川) 군(郡) 현(縣)의 이름을 고쳤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지 100여년 후에 단행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행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경덕왕16년(757)	고려 태조23년(940)
栗津郡	果川
穀壤縣	衿川(또는 嶺川)

* 자료 「고려사」지리지 서문

왕건의 지명 변경(變改)의 특색은 신라시대의 9주 지역 외에 국가의 공원이 있거나 왕실의 외척지(外戚地)등에 「~川」의 명칭을 지나치게 남발했는데 예를 들면 견성군(堅城郡)을 포주군(抱川郡) 소성현(邵城縣)을 인주(仁川) 철성군(鐵城郡)을 동주(東川) 진예군(進禮郡)을 금주군(錦川郡)으로 개칭한 따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지방은 지관(知官)으로서의 주의 명칭이 아니고 금주와 과주는 감무관(監務官)으로서 주의 명칭이므로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된 것은 제6대 성종(成宗 982~997)때 였다 신라 육두품계열의 유학자 최승노(崔承老 927~989)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직개혁(鄉職改革)을 실시했다 즉 성종 2년(983)에 설치된 12목제(十二牧制)가 고려의 지방제도로는 최초가 아닌가 보여진다 12목제의 설치배경은 지방관 설치를 통하여 중앙의 행정력을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일단의 행정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12목제는 성종 14년(995)에 12주(十二川)로 명칭을 바꾸고 직명도 목사에서 절도사(節度使)로 바꾸고 그 밖에 도단련사(都團練使) 단련사(團練使) 칙사(勅使) 방어사(防禦使) 등 외관을 일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증설하였는데 『고려사 지리지』에 의한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단련사 水川 運川
- 단련사 衿川 樹川
- 칙사 林川 提川

이러한 배치는 불과 10년 후인 목종 8년(1005)에 파하고 말았다 성종 14년(995)의 제도정비 중 주목할 사항은 당(唐)의 제도를 모방한 10도제(十道制)였다 기내도(畿內道 경기도 황해도 일대)를 비롯한 10도가 그것인데 안찰사(按察使) 등 중앙의 관인이 순찰하고 돌아오는 정도로 도의 수장이 그 곳에 상주하는 행정구역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말아 10년만에 폐지되었다

성종대의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별호제(別號制)였다. 성종10년(991)의 별호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확립되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려 사회의 본관이나 성씨 봉작명(封爵名)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원리였다. 더욱이 지명 이외에 따로 별호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일련의 국가권력과 지방토호세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주의 별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한 기사를 살펴 보기로 한다.

果川 本高句麗栗木郡(一云 冬斯○) 新羅景德王改爲栗津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 別號富安(成廟所定) 又號富林 有冠嶽山 (『高麗史』권56 지10 지리1) 果川縣 本高句麗栗木郡 新羅改爲栗津郡 高麗改爲果川 顯宗戊午屬廣川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果川縣監 別號富林(淳化所定一作富安) (『世宗實錄』권148 地理 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천군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인데 이러한 별호는 고려 성종 9년(990)~성종 13년(994)에 정해졌다고 하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순화(순화 송의 연호 990~994)년 간에 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이 당시 성종의 유교적 제제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송의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별호로 제정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조대의 정치확립에는 최승로(崔承老)의 정책의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태조이래 공신의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출신지에 별호를 부여하게끔 하였으며, 또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성종대에 별호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2년(1011)에는 거란의 제 2차 침입으로 수도 개경(開京)이 함락당했으며 이듬해에는 절도사가 다시 폐지되고 안무사(按撫使)가 설치되었다가 현종 9년(1018)에 다시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四都護) 8목(八牧) 56지주군사(五六知川郡事) 28진장(二八鎭將) 20현령(二十縣令)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기능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곳은 4도호 8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중앙관리가 전임으로 파견 상주하는 주(川) 부(府) 군(郡) 현(縣) 진(鎭)이 있었다. 그 중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된 곳을 주목(主牧) 영군(領郡) 주현(主縣)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은 지방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현종 9년(1018)에 개편된 지방제도에 의거 안양지역인 과주는 천령(川寧) 이천(利川) 죽주(竹川)와 함께 광무목(廣川牧)에 금주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부평)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그 후 과주는 감무(監務)를 두었고 숙종 7년(1102)에 용산처(龍山處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에 고관을 시켜 도읍지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후 중렬왕 10년(1284)에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어 과주에서 분리되었으며 금주는 명종 2년(1172)에 비로소 감무를 두어 지방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 중 주목할 사항은 '경기(京畿)'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다 즉 성종 2년 개성부와 동시에 적현(赤縣 京縣)과 기현(畿縣)을 파하고 현을 두어 정주(貞川 豐德郡지방) 덕수(德水 開豐郡 지방) 강음(江陰 全川郡 지방)의 개성현을 두어 장단현령으로 하여금 송림(松林) 임진(臨津) 토산(兎山) 임강(臨江) 적성(積城) 과평(坡平) 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칭하였다 그후 문종 23년(1069)에 다시 50군현으로 확장된 후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조 준(趙俊 1346 ~ 1405)이 사전개혁에 관한 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에 따라 사전개혁이 실시되어 경기를 좌우도로 분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좌도에는 과주를 비롯하여 금주 안산군 등이 속했고 경기우도에는 개성현 강음현 김포현 등이 속했다

3 조선시대

조선왕조를 성립시킨 주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과 러말(麗末)에 등장한 신흥 사대부로 그들은 고려말에 전래된 성리학으로 정신무장된 신흥 정치세력이어서 중앙의 정치기구나 지방통치조직은 유교정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이어서 국초(國初)의 지방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차차 지방제도가 완비되자 수도인 한성부 주위의 경기도에 포함되었던 서북쪽의 7개 지방을 분할하여 서해도(西海道)에 분리시키고 수도에 인접한 양광도의 제지방을 경기도에 이속시켜 광주 수원 관하의 한강 이남의 군 현을 경기좌도라 하였고 양주 연안 등 한양 이북의 군현을 우도라 하였는데 안양지역인 과주와 금주는 고려말의 행정제도와 같이 경기좌도에 속했다가 다시 태종 2년(1402)에 경기좌도와 우도를 합하자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속하였다

왕조의 기반이 안정되어가고 왕권이 점차 확립되어가자 유교정지에 입각한 제도개편에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자 태종 13년(1413)에는 지방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팔도제(八道制)의 편제와 각급 군읍(郡邑)의 정비였다. 8도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인데 고종 32년(1895) 23부제로 고쳐질 때까지 조선시대를 통하여 지방행정 제도의 기본으로 되었다. 8도에는 관찰사(觀察使 監司 종2품)가 파견되어 수령으로 통칭되는 도내의 부윤(府尹 종2품) 목사(牧司 정3품) 부사(府使 종3품) 군수(郡守 종4품)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을 통할 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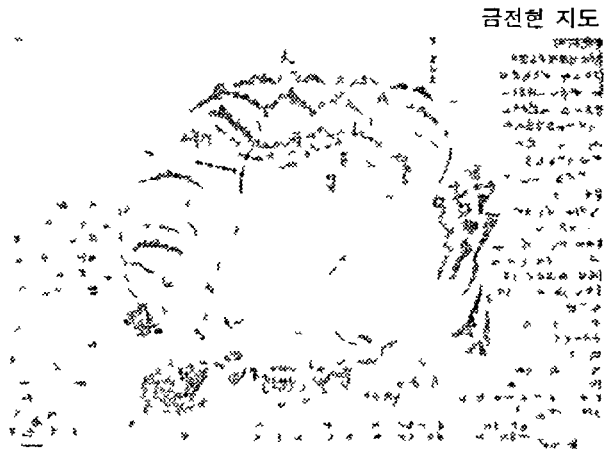
태종 13년(1413)에 전개된 지방개혁의 특징은 고려조에 남발되었던 '~주'의 명칭을 대폭 정리한 것으로 이는 다분히 고려왕조의 잔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작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각도의 부관(府官)은 도호부로 고치고 감무는 현감으로 고치며 무릇 군이나 현에 '~주(川)'자가 든 고을을 모두 '산(山)'자나 '천(川)'자로 고쳤으니 영주(寧川)는 영천(寧川)으로 금주(衿川)는 금천(衿川)으로 과주(果川)는 과천(果川)으로 고친 것이 그 본보기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권 148 과천현 조에 과천현의 연혁을 풀이한 대목을 보면 무릇 주(川)와 부(府)와 군(郡)과 현(縣)사이에는 각각 등급이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지관(知官)이 행정관이 있는 자리에 도 '~주(川)'자로 붙여 부르는데 이런 보기로는 인주(仁川)나 괴주(槐川)하는 따위가 바로 그것이고 현감으로서 주자를 붙여 부르는 고을도 있는데 과주와 금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뒤섞여 부르기 때문에 그 고을에 등급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지관이나 감무관으로 행정관리가 된 고을은 그 '~주(川)'자를 모두 '천(川)'자나 '산(山)'자로 바꾸었다.

태종 13년에 개정된 과천현은 이듬해 다시 금천현(衿川縣)과 병합하여 금천현의 '금(衿)'자와 과천현의 '과(果)'자를 합해 금과현(衿果縣)이라 칭하였으나 불과 두어 달 만에 파하고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이어 다시 세조 2년(1456)에 금천현과 병합했지만 역시 얼마안가 파하고 예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태종실록』 태종 14년 8월 신유 및 동 9월 무인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월 21일 신유(辛酉)에 왕이 의정부 육조 대간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인견(引見)하여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자문(紫門)에 모여 의논한 결과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 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하며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 양천을 합하여 손양(孫陽)

으로

곧 여러 고을의 군현 합병안을 제시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고 다음 달인 9월 8일 무인에 금천과 과전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정하여 현정 소재지를 금전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김포와 양전을 합하여 김포에 현치(縣治)를 두었다 그런데 과전과 양천이 각각 경성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군현의 동폐합을 재고함이 어떠한 것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전을 금전으로 옮기고 양전을 김포에 옮기는 것이 좋다"는 호조의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무리가 따랐던지 다음달인 윤9월 24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과전을 금전에 병합했으나 경성에서 수원까지의 사객영송(使客迎送)등에 불편하니 과전현감을 다시 두기로 하고 그 대신 금전을 양전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경에 붙일 것을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군현의 병합 역시 무리가 있었던지 태종 16년(1416) 8월 30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서 병합한 군현 중 금전과 양천 삭녕과 안협 마전과 연천 김포 등을 종전대로 복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어 세조 2년 (1456) 5월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과전과 금천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으나 전지(傳旨)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병조판서 신숙주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라"고 하였고 이듬해 (1457) 2월 25일 이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과전과 금천을 합하여 한 고을로 삼고는 금천으로서 치소(治所)를 삼았으니 비록 양재역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마는 대소사객(大小使客)들을 역에서 스스로 접대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하읍건대 금천으로써 치소를 삼게 하고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세조 6년(1462) 5월 3일 이조에서 과전 백성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과전현을 혁파하여 금전현에 붙였으나 다만 과전현과 금전현의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 옆에 있어서 사객(使客)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

물은 지나치게 적어서 양현(兩縣)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접대하기 어려우므로 정권 대 치소를 본현으로 옮겨 주소서"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태종조 이래 근 50여 년 간 금전현과의 병합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조선조의 지방제도가 태종대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면 군사제도는 세조대에 이르러 완비를 보았다 즉 세조 원년(1455)에 지방방위 조직을 일신하여 처음으로 내지(內地)의 주(川) 현(縣)도 모두 군상(軍上)으로 편제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수 개의 거진(巨鎭)을 두는 이외에 광주 양주 부평의 삼도(三直)로 나누어 각 도마다 인근 각 읍을 중(中) 좌(左) 우익(右翼)으로 분속시키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직을 겸대시켜 중익수령을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불렀는데 안양지방은 부평도로 과천현은 좌익에 금전은 중익에 각각 편제되었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는 중 좌 우익제를 폐지한 후 동왕 12년(1466)에는 진관제제(鎭管體制)가 창설되면서 과천군은 광주 진관 관할하에 금천현은 수원진관 관할하에 각각 예속되었다 진관제제란 거진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진을 이에 소속시킴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으로 대체로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어 안양지역의 관할구역

과천현의 치소 옛 과천군 관아였고 1914년 부터 과천면 사무소로 사용되었다(1950년대)



은 어떠하였는가 안양지역의 관할구역은 행정구획 개편마다 변동되었는데 행정구획 개편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천과정을 살펴 본다 조선 초기의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의하면 과천현(당시의 치소는 지금의 과천시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음)의 사경(四境)은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전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 19리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 25리였으며 금천현(당시의 치소는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 5동 107 번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 있었음)의 4경은 동쪽으로 과천에 이르기 14리 서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 안산에 이르기 15리 북쪽으로 노도(露渡)에 이르기 18리였다

그 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1481)에 의하면 과천현의 4경은 동쪽으로 광주 경계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부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전현 경계까지 20리 안산군 경

계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鷺梁)까지 20리 서울까지는 33리였으며 금천현의 4경은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11리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16리 서쪽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17리 북쪽으로 양천현 경계까지 27리 노량까지는 23리 서울과의 거리는 31리였다 전자의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후자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세밀한 편이나 그렇다고 안양지역의 경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양지역의 광역적인 지경(地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면(面)의 명칭과 아울러 이에 포용되는 자연취락의 구체적인 명칭이 드러나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

다음의 표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 지지 중 안양지역의 면별 변동상황을 시내별로 분류한 것이다

읍지 지지명	간행연도	읍명	주요항목	관할면명
여지도서	영조35년 (1759)	과전현	면별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상서 하서 남 상북 하북
		금전현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서 남 상북 하북

읍지 지지명	간행연도	읍명	주요항목	관할면명
경기지	고종연간	과전현	면명만 기재	동 현내 상북 하북 남 상서 하서
		시흥현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남 서 상북 하북
과전군읍지	광무3년(1899)	과전현	면명만 기재	군내 동 남 상서 하서 상북 하북
시흥군읍지	광무3년(1899)	시흥군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군내 동 남 서 상북 하북

위의 표 중 가장 오래된 자료가 『여지도서』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면은 과천현의 경우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등 7개면인데 그 중 오늘날 안양지역에 해당되는 면이 상서면(지금의 동안구 관할구역)과 하서면(지금의 만안구 관할구역)이다

한편 금전현은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등 6개면인데 그 중 안양지역은 현내면(오늘날의 박달1동 박달2동과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및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지역)이다 안양지역의 면의 수는 조선 말기까지 별로 변동이 없었으나 현내면의 경우 고종 32년(1895)에 과전현과 시흥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자 군내면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런데 위의 자료 중에는 각 면별 포괄 동리명(洞里名)도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과천현

- 현내면(마을수 6) 加日里 葛峴里 莫界里 文原里 下里 邑內里
- 동면(마을수 6) 在岩里 牛眠里 新院里 良才里 明達里 霜草里
- 상북면(마을수 6) 舍堂里 方背里 浦村里 銅雀里 盤浦里 沙坪里
- 하북면(마을수 8) 黑石里 鷲梁里 上加次山里 下加次山里 新分村里
高寺里 瓮店里 瓮幕里
- 상서면(마을수 3) 一洞里 二洞里 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8) 一洞里 二洞里 道陽里 虎溪里 安養里 撥舍里
後頭尾洞 石手村
- 남면(마을수 7) 衿井里 堂里 堂井里 鳳城里 章干里 山本里 富谷里

■ 금천현

- 현내면(마을수 3수) 博山里 博達里 安養里
- 동면(마을수 9) 禿山里 加里峰里 文橋里 蘭谷里 書院里 新林里
奉天里 成桃花里 上道里
- 남면(마을수 5) 廣火大里 尤明里 阿方里 老溫寺里 柳等里
- 서면(마을수 9) 鞍峴里 加里大里 栗日里 自警里 所下里 一直里
鐵山里 下坪里 已省里
- 상북면(마을수 7) 遠志牧里 九老里 沙村里 道也味里 堂山里
楊坪里 仙遊峰里
- 하북면(마을수 5) 牛臥皮里 番大方里 新吉里 永登浦里 放鶴亭里

이상의 읍지 지지 중에 나타나는 동리의 명칭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에 편찬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면의 수나 명칭은 동일하나 동리의 명칭 및 동리의 예속 여부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당시의 안양지역 행정지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위의 자료는 박달리가 금천현 현내면에 속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호구총수』에는 서면 박달리에 속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과천현의 상서면과 하서면의 동리 명칭도 위의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면 관계상 현재의 안양시에 해당되는 지역만 소개한다

■ 과천현

- 상서면(마을수 3) 三峴一里 三峴二里 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6) 貴仁一洞 貴仁二洞 虎溪里 安養里 後頭尾里 道陽里

■ 금천현

- 현내면(마을수 3수) 邑內里 博山里 安養里
- 서면(마을수 9) 博達里 加里大里 一直里 所下里 (이하생략)

위와 같은 행정구획은 그 후 계속 습용되어 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변동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태종 이래 482년간이나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실시된 것이다 동년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호로 반포되어 시행을 본 행정개혁은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털어 모두 군으로 동일하였는데 이때 과천현은 과천군으로 시흥현은 시흥군으로 각각 승격되어 군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한편 23부는 한성부를 비롯하여 인전부 홍주부 충주부 공주부 전주부 등인데 안양지역인 과천군과 시흥군은 모두 인전부에 속하였다 또 이 해 9월 5일에는 칙령 제164호 '군수관등 봉급에 관한 건'에 의거 과천군과 시흥군이 5등군이 되었다 그런데 23부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본지 1년 2개월만에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 관제 봉급 경비 개정의 건'을 공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 강원 황해를 제외한 5도를 남북 양개도로 분할한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체계는 바로 이 13도제에서 부터 그 기반이 확립되었는데 13도제에 따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4부, 치소 수원)

- 一 等 廣川郡 開城府 江華府 仁川府
- 二 等 水原郡
- 三 等 驪川郡 楊川郡 長湍郡 通津郡
- 四 等 果川郡 安山郡 始興郡 坡川郡 利川郡 富平郡 南陽郡
 豐德郡 抱川郡 竹山郡 楊根郡 朔寧郡 安城郡 高陽郡
 金浦郡 永平郡 麻田郡 交河郡 加平郡 龍仁郡 陰竹郡
 振威郡 陽川郡 砥平郡 漣川郡 陽城郡 喬桐郡 積城郡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천군과 시흥군은 4등군이 되었는데 이후로는 안양지역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지방 행정 구역의 말단 행정구역명인 리 동(里洞)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천군(7면 55동리, 치소 → 과천군 군내면 관문동)

- 군내면(마을수 9) 官門洞 內店洞 外店洞 校洞 下里洞 莫界洞
文原洞 加日洞 葛峴洞
- 동면(마을수 7) 在岩洞 新院洞 院基洞 良才里 牛眠里 瑞草里
明達里
- 상서면(마을수 4) 一洞 二洞 外飛山里 內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9) 一洞 二洞 道陽里 虎溪里 後頭尾洞 塹內洞
撥舍洞 石手洞 安養里
- 남면(마을수 10) 山本洞 堂里 龍虎洞 章干里 富谷里 槐谷里
衿井里 堂井里 鳳城里 草幕洞
- 상북면(마을수 8) 舍堂里 方背洞 浦村里 銅雀里 下盤浦里 沙坪里
蠶室理 上盤浦里
- 하북면(마을수 8) 里石里 本洞 上加次山里 下加次山里 新分村里
高寺里 瓮店里 瓮幕里

■ 시흥군(6면 22동리, 치소 →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리)

- 하북면(마을수 3) 永登浦里 新吉里 番大方里
- 동면(마을수 5) 上道里 新林里 奉天里 加里峰里 禿山里
- 군내면(마을수 3) 郡內洞 安養里 博達里
- 남면(마을수 3) 鶴鶴洞 老溫寺里 尢明里
- 서면(마을수 4) 一直里 所下里 下安里 鐵山里
- 상북면(마을수 4) 楊坪里 堂山里 道林里 九老里

4 일제강점기

정일전쟁(1894)과 노일전쟁(1904)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그들의 세력을 확고히 굳힌 후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해

가더니 급기야는 1910년 8월 29일 한 일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주권은 이로부터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일제는 한국강점과 동시에 서울에 통감부대신 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총독은 육 해군의 현직 대장 중에서만 임명되고 아울러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어 정무총리권 출병정구권 법령제정권 명령권 감독권 등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고 헌병경찰조직을 통하여 무단정치를 감행하였다 이와같이 무단정치를 구축한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통치를 감행하기 시작하여 강점한 지 한 달만인 동년 9월 30일 '총독부 관제'와 함께 칙령 제357호로 '조선 총독부 지방관제'를 공포하여 중전 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고 도의 하부 행정조직으로는 부 군 면을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두되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말단 행정조직의 장(長)인 면장의 실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식민통치의 효과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한층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날(10월 1일) 총독부령 제8호로 '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듬 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의거 경성부에 군 면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인 도(道) 부(府) 군(郡) 현(縣) 면(面)간의 경계변동이 있었을 뿐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다가 식민통치를 보다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일제는 1913년 12월 29일 공포된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 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도의 관할구역과 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폭적으로 정리 단행된 이 개혁안은 도와 부 군에 있어서는 1914년 3월 1일부터 면 리에 있어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1916년에 완결을 보았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각 계층별 지방행정 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 때에 기틀이 확립되었으나 식민통치의 효율적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명을 획일적으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개편 이전의 옛 자연취락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개편으로 인하여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었는데 이로써 시흥군은 북면(北面) 신동면(新東面) 서면(西面) 과천면(果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 등 9면 83리로 편제되었다 한편 안양지역은 대폭적인 행정구획 변경에 따라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는 서면에 군내면 안양리는 동면에 그 외 전지역은 모두 서이면에 속하게 되었다 3군으로 통합된 후 시흥군의 행정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면(11개리, 치소 영등포리)

- 永登浦里 始興郡 下北面 永登浦里 重宗里 下方下串里
- 新吉里 始興郡 下北面 新吉里 上方下串里
- 番大方里 始興郡 下北面 番大方里 牛臥皮里
- 道林里 始興郡 上北面 道也味里 遠之牧里 沙頓里
- 九老里 始興郡 上北面 九老一里 九老二里
- 堂山里 始興郡 上北面 堂山里 楊津里
- 楊坪里 始興郡 上北面 楊坪里
- 鷺梁津里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 襄幕里 襄店里 新村分里
- 里石里 果川郡 下北面 里石里
- 銅雀里 果川郡 上北面 銅雀里 浦村里

■ 신동면(8개리, 치소 우면리)

- 牛眠里 果川郡 東面 牛眠里
- 良才里 果川郡 東面 良才里
- 蠶室里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 沙坪里
- 盤浦里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 下盤浦里
- 方背里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 舍堂里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 新院里 果川郡 上北面 新院洞
- 瑞草里 果川郡 上北面 瑞草里 明達里

■ 동면(7개리, 치소 시흥리)

- 始興里 始興郡 郡內面 郡內洞
- 秃山里 始興郡 東面 秃山里 文橋里
- 新林里 始興郡 東面 新林里 書院里 蘭谷里
- 奉天里 始興郡 東面 奉天里 果川郡 下北面 本洞里 일부
- 加里峯里 始興郡 東面 加里峯里
- 安養里 始興郡 東面 安養里

■ 서면(8개리, 치소 소하리)

- 所下里 始興郡 西面 所下里 加里大里
- 日直里 始興郡 西面 一直里 自警里
- 鐵山里 始興郡 西面 鐵山里 일부 巳省里
- 下安里 始興郡 西面 下安里 鞍峴里 栗日里
- 博達里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尤明里 始興郡 南面 尤明里 廣大里
- 老溫寺里 始興郡 南面 老溫寺里 阿方里
- 駕鶴里 始興郡 南面 駕鶴里 老溫谷里 柳等里



서면사무소(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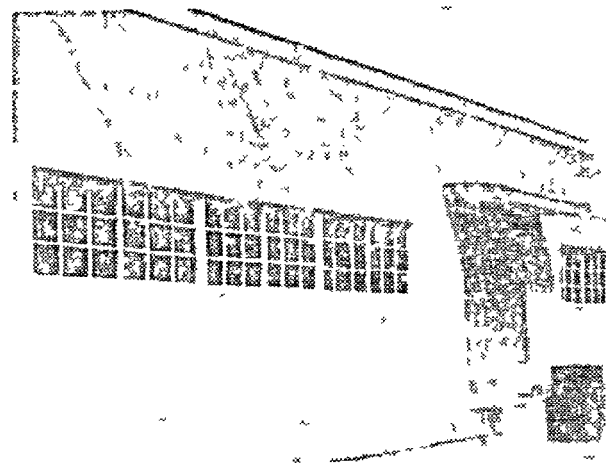
■ 과천면 (6개리 치소 관문리)

- 官門里 果川郡 郡內面 官門洞 內店洞
- 文原里 果川郡 郡內面 文原洞 外店洞 杖洞
- 下里 果川郡 郡內面 下里洞
- 莫溪里 果川郡 郡內面 莫界(溪)里
- 汪岩里 果川郡 東面 汪岩里
- 葛峴里 果川郡 郡內面 葛峴洞 加日里

■ 서이면(5개리 치소 호계리)

- 虎溪里 果川郡 下北面 虎溪洞 道陽洞
- 安養里 果川郡 下北面 潑舍里 安養里 石墘里 培內里
- 一洞里 果川郡 上北面 一洞 二洞
- 二洞里 果川郡 上北面 一洞 二洞
- 飛山里 果川郡 上北面 內飛山里 外飛山里

남면사무소(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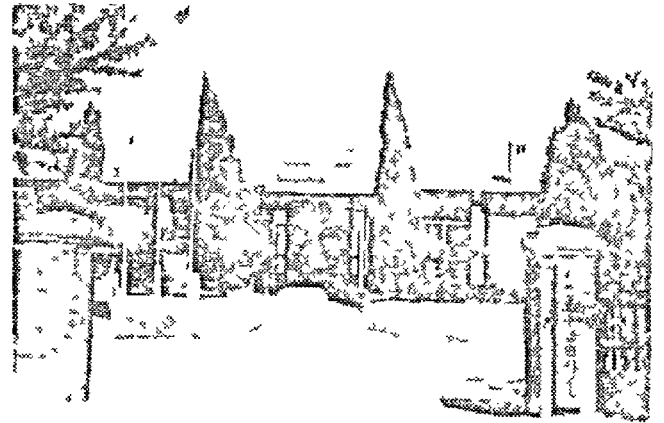
■ 남면(5개리 치소 당리)

- 堂里 果川郡 南面 堂里 龍虎洞
- 堂井里 果川郡 南面 堂井里 鳳城里
- 衿井里 果川郡 南面 衿井里 槐谷里
- 山本里 果川郡 南面 山本里
- 富谷里 果川郡 南面 富谷里 章干里

■ 수암면(19개리, 치소 수암리)

- 秀岩里 安山郡 郡內面 秀岩里 西亭里
- 章上里 安山郡 郡內面 獐上里 東谷里
- 章下里 安山郡 郡內面 獐下里
- 釜谷里 安山郡 郡內面 釜谷里 新里
- 聲浦里 安山郡 郡內面 聲浦里 占星里
- 楊上里 安山郡 郡內面 楊上里 楊下里
- 陵谷里 安山郡 仍火面 北谷里 陵谷里
- 花井里 安山郡 仍火面 花井里 廣谷里
- 瓦 里 安山郡 仍火面 瓦上里 瓦下里
- 古棧里 安山郡 仍火面 古棧里
- 月陂里 安山郡 仍火面 月入陂里
- 烏南里 安山郡 草山面 烏南里 祭廳里
- 牧甘里 安山郡 草山面 牧甘里 栗浦里
- 物旺里 安山郡 草山面 勿項里 上職里
- 論谷里 安山郡 草山面 論谷里
- 下中里 安山郡 草山面 下中里
- 山峴里 安山郡 草山面 山峴里 槐谷里
- 下上里 安山郡 草山面 下上里 中職里
- 廣石里 安山郡 草山面 廣石里 下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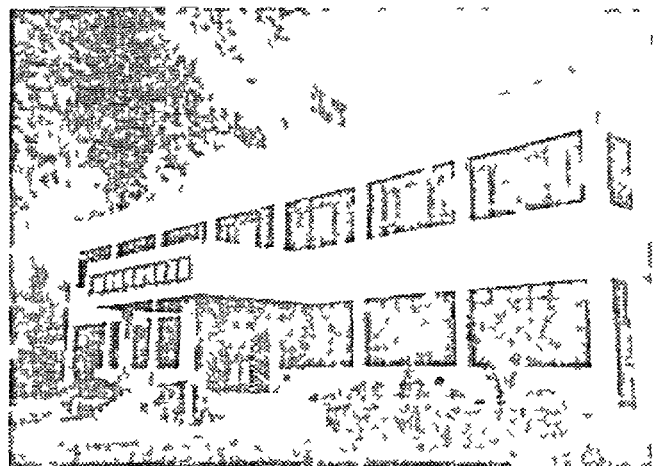
수암면사무소(1988)



■ 군자면(14개리 치소 거모리)

- 去毛里 安山郡 大月面 去毛浦 石谷里
- 君子里 安山郡 馬遊面 九井里 山北里
- 長峴里 安山郡 馬遊面 長上里 烏峴里
- 長谷里 安山郡 馬遊面 長下里 島村里
鷹谷里
- 月串里 安山郡 馬遊面 月東里 月西里
- 正往里 安山郡 馬遊面 正往里 烏耳里
- 竹栗里 安山郡 馬遊面 竹栗里
- 仙府里 安山郡 大月面 仙府里 達山里

군자면사무소(1988)



- 草芝里 安山郡 瓦里面 草芝里 元堂里
- 元谷里 安山郡 瓦里面 元上里 茅谷里
- 新吉里 安山郡 瓦里面 新角洞 赤吉里 城內洞 船谷里
- 城谷里 安山郡 瓦里面 城頭里 茂谷里
- 木內里 安山郡 瓦里面 梨木洞 陵內里
- 元時里 安山郡 瓦里面 元下里 時雨里

위의 행정구역 중 서면은 지금의 광명시의 전 행정명칭이며 면사무소는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에 있었다 동면은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과 관악구 신림동 봉전동 남현동 일부 및 동작구 상도동과 구로구의 가리봉동이며 면사무소는 시흥리에 있었다 그리고 서이면은 안양시의 전신으로 과천군의 상서면과 하서면은 합하면서 서(西) '자' 둘이 있는 면이란 뜻인데 면사무소는 호계리에 있었다 호계리에 서이면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과천군 하서면사무소가 있었는데다가 이곳 출신으로 초대 면장과 초대 읍장을 지낸 조한구의 힘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호계리의 서이면사무소는 설치된지 3년여 만인 1917년 7월 6일 안양리(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71)로 이전되었다 면사무소를 안양리로 이전하게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양리에 안양역이 설치되어서 인구의 집중화 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부터 서이면을 비롯하여 안양면 안양읍 안양시정사가 안양리(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경성부에 인접한 안양지역은 경성부의 구역확정책에 따라 1936년 4월 1일 부령 제8호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개정'에 의거 시흥군의 영등포읍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북면의 신길리 노량진리 본동리 동작리 흑석리 동면의 상도리가 경성부에 편입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자 시흥군민들이 영등포읍 영등포리에 소재한 시흥군정사를 시흥군의 중심지인 서이면 안양리로 이전하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하고 군민대회 및 군민들로 부터 서명날인 하는 등 끈질긴 유치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사는 이전되지 않았다가 일제 대망 후 광복이 되자 안양읍 안양리 688(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51)로 이전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양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40년 3월 31일 서이면 협의회회가 서이면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하수도 공사를 실행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다 이듬 해(1941) 10월 1일에는 부령 제253호에 의거 서이면이 안양면(安養面)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면명의 변경은 1920년대 이래로 조선직물을 비롯하여 유수의 공장이 들어서자 공장발전 주세에 따라 안양의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결국에는 면 행정의 중심지인 안양리를 면명으로 개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5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측에게 무조건 항복하자 한국은 일제 식민통치로 부터 광복을 맞게 되었으나 엉뚱하게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이 대두되고 미군과 소련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급기야는 군정(軍政)이라고 하는 과도기가 2년 11개월 동안 미군에 의한 잠정적인 점령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군정(軍政)기간에서의 지방제도 중 특기할 사항은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그 관할구역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8개 구를 설치한 것이었다

광복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은 막을 내렸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하게 됨을 의미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 (11월 17일)에는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時限法)인 법률 제8호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동법은 그 뒤 9개월이 경과된 1949년 7월 4일에는 법률 제32호인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府)를 시(市)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하는 외에는 종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공포 직후인 동년 7월 11일에는 서울시가 구역확장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인접지역인 경기도의 고양군과 시흥군의 관할구역 중 3천 3백여만평의 편입을 요구하는 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결과로 동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59호인 '시도의 관할구역 및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의 구로리(九老里) 도림리(道林里) 번대방리(番大方里)가 서울시에 편입되었으며 같은 날 제정 공포된 '읍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安養邑)'으로 승격되었다. 서울시 구역확장과 안양면의 승격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실시되자 동년 8월 19일 내무부장관 김효석(金孝錫)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수 순천 포항 수원 김천 등 5읍이 부(府)로 광양(光陽) 안양(安養) 등 2면이 읍으

로 승격되고 또 서울시의 구역확장을 보게 된 것은 국력이 나날이 충실하여짐을 증명하는 것이요 국가가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오로지 그 지방주민의 복리로 보아서 또한 다행한 일이다
자치법이 공포된 이 때에 그 규정에 따라 그 시기를 기다리도록 하여 왔으나 여러 방면에서 요망하기를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우선 승격시키도록 한 것이다 - 「동아일보」 1949 8 20 -

안양읍 승격 당시(1949)의 현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듬 해 (1950) 발행된 『금천지(衿川誌)』가 거의 1949년 당시의 현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안양읍의 현황을 알아본다

- 면적 39 07km²
- 인구 20,021명
 - 남자 9 835명 여자 10 191명
- 세대수 3,791세대
- 행정현황
 - 읍장(조한구) 1 부읍장 1 리수 5 구장수(區長數) 34 반장수 167
서기 18 기사 2
 - 예산액 4 309 820환
- 농업현황
 - 농가호수 1 245호 즉우호수 390호 양돈호수 142호 양계호수 282호
 - 농경지면적(논 714町8反 밭 583町 5反) 농가1호당(논 58(畝) 밭 47畝)
 - 과수현황(배 8町2反 포도 14町3反 복숭아 1町4反 밤 기타 31 町8反
계 55町7反)
- 공장현황
 - 제일방직공사(10 810평 모직물)
 - 금성방직주식회사(5 600평 면사)
 - 안양직물공장(351평 본건 인건)
 - 조선빠이루공업유한회사(700평 메리야쓰)
 - 낙랑실업공사(61평 본건 인건)
 - 조선견직주식회사(1 0260평 본건 인건)
 - 조선직물주식회사(5 853평 본건 인건)

- 삼덕제지주식회사(4 784평 모조지 선화지)
-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5 741평 석면 시트박킹)
- 조선제합공업합자회사(1 200평 제재)
- 남해산업공사(10 529평 철도침목)
- 삼길양산제조소(400평 양산 우산)
- 조선특수도기주식회사(240평 도자기제품)
- 삼신제도공업사(120평 도자기제품)

■ 교육현황

- 초등학교 안양초교 흥안초교 관양초교
삼성초교
- 공민학교 안양 朝穢 안양작물 고려석면
삼왕제지 虎峴 一洞 조선건직
- 중학교 안양공립공업중 안양여자중
- 고등공민학교 안양고등공민학교

초대 안양읍장 조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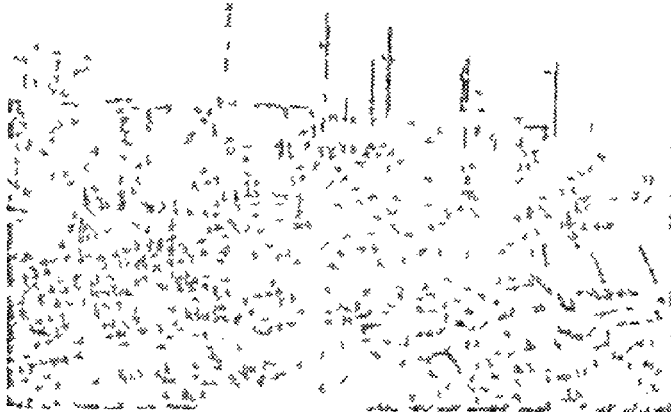


안양읍으로 승격되자 동년 9월 7일에는 안양읍 승격 기념축하행사를 안양공설시장에서 거행했으며 초대 안양읍장에는 초대 서이면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한구(趙漢九)가 선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안양읍 정사가 파괴되자 그 후 수족공사를 실시해 1952년 12월 15일부터 새 안양읍 정사에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쳐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았으나 그 출발부터 순탄치를 못래 1960년 4 19때까지 무려 4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행정구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양지역은 행정구역상 별 변동이 없다가 1960년대에

갯더미로 변한 안양역 구내(1950 『한국철도 80년 역사』에서)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근 경기도의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나가자 사회문제와 행정상 애로에 직면하게 되자 서울시의 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정비를 목



표로 시흥군 등 인근에 구역을 흡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63년 1월 1일에 시행을 본 법률 제1175호인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



의왕면사무소(1970년대)

거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 방배리 반포리 양재리 사당리 우면리 신원리 서초리와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신림리 봉전리 가리봉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으며 같은 날 시행을 본 법률 제 1175호인 '시 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개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시흥군 동면 안양리(安養里)와 서면 박달리(博達里)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내에 안양리란 행정지명이 있으므로 신안양리(新安養里)로 개정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구역확장으로 시흥군의 신동면 및 동면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자 동 법률 제1175호에 의거 화성군 일왕면의 고전리 등 9개리가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다 고도의 발전과정에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주세와 함께 사회여건이 크게 발전되어 전답은 공장부지로 바뀌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전환되어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인구의 과중현상을 보여 왔다 특히 수도 서울은 1964년 이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며 아울러 서울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과 인진 수원 의정부 등 기존의 도시들과 함께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시설 이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지 분합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안양읍을 '안양시(安養市)'로 승격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케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중 리(안양리 1914) → 면(안양면 1941) → 읍(안양읍 1949) → 시(안양시 1973)에 이르기까지 꼭 60년만에 단계적 과정을 거친 유일의 市인 안양은 일제강점 초인 1912년에는 인구가 3 464명에 불과했으나 1949년 읍승격 당시는 2만 26명 1957년에는 2만 2천 181이었으며 1960년에는 3만 1천 673명으로 급격한 발전 주세를 보이다가 1970년에는 9만 1천 894명으로 인구면에서

만 본다고 해도 시 승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안양의 도시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26년에 처음 거론된 후 1940년에 하수도 공사실시와 광복 후 혼란기를 거쳐 1953년 3월 12일에는 안양의 도시계획 구역을 52 437km² 로 결정한데 이어 5년 후인 1958년 3월 12일에 용도지역제를 시행했으며 1967년 5월 16일에 도시계획 구역을 72 334km² 로 다시 1972년 8월 25일 116 210 km²를 확장했고 이듬 해 7월 12일에 157 2km² 로 대폭 확장구역을 실시했다 1972년에는 시 승격을 예상하고 서울-수원간 고속화도로(폭 25m)를 안양 시가지 앞을 지나도록 조정했고 신안양리(현 석수동)에서 국도를 잇는 폭 35m 길이 5km의 간선 도로를 신설 포장했으며 1972년 3월부터는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수암천(秀岩川)을 개발 도로확장과 주택건설을 착수했다

한편 안양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양읍의 인구가 1971년 10월 1일 현재 10만 1천 749명으로 늘어 시 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1972년 2월 25일에 안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당시 이택돈(李宅敦)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복수 유창노 김전대 문광식 이광원 오연교 김동식 함기용 등 시역 유지 21명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안양읍 시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배순 후에 박용학 선임)를 발족하고 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안양시로 승격(1973 7 1)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면적 58km²
- 가구 21, 000가구
- 인구 104, 515명
- 행정동(12) 안양 1 2 3 4
5 6 석수, 박달 비산 관양
평촌, 호계동
- 시청사 대지 564평, 건평 230평
으로 구 안양읍청사와 경찰서 청사
를 별관으로 사용
- 시기구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등 5과 24계
- 공무원수 157명
- 주요기관 안양시, 교육청, 경찰서 등 20개 기관
- 의료시설 보건소1, 종합병원 2, 의원 16, 치과위원 6 한의원 13,



시 승격 후 안양읍사무소에서 일시 시장업무로 보다 (1973)

약국 44, 기타 9

- 교육기관 국교 7, 중학교 5, 고교 3
- 학생수 고교생 1,790, 중학생 5,681명, 국교생 15,115명, 기타 400명
- 상가 중앙공설시장(185점포), 남부시장(86점포)
- 환경업소 다방 47, 식당 125, 호텔 1, 여관 59, 여인숙 55
- 기업체수 97
- 최고층건물 5층
- 땅값 최고시세 30만원(평당)

※ 자료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 20년사』 (1990)

1989년 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평촌지구 개발은 1992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시가지가 형성되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 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자 범계동을 비롯하여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갈산동 평안동 신촌동 귀인동 등 8개 행정동을 신설하고 이 해(1992) 5월 7일에는 시 조례 제1161에 의거 범계동과 부흥동이 각각 개칭되었으며 이어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가 1992년 10월 11일 시 조례 제 1173호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동년 10월 1일 만안구 동안구로 승격하였다 특히 동안구는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평촌동 등 4개 법정동이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어 8개 행정동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동별로 보면 관양동 1개동(부림동) 비산동 2개동(부흥동 달안동) 평촌동 2개동(평안동 귀인동) 호계동 3개동(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이다

안양시로 승격된 뒤 안양은 인구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행정동을 분동하는가 하면 구제(區制)를 실시하였고 이어 주민편익에 따라 인접 지역과의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1979 4 28 공포)로 안양6동을 안양6과 7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 2동으로 분동(14개동)
-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1982 8 5 공포)로 비산동을 비산1과 비산2동으로 분동(15개동)
-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1983 9 14 공포)로 호계동을 호계1 2동으로 분동(16개동)
-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739호(1983 11 11 공포)로 안양6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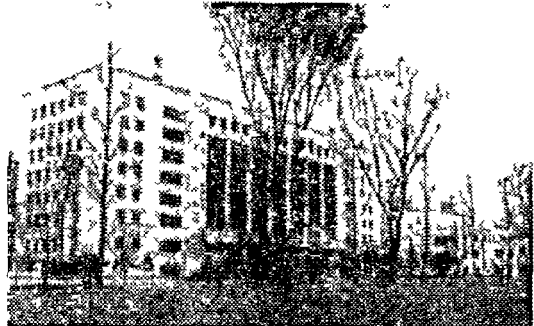
안양6과 안양7동으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3동으로 분동
(18개동)

-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로 광명시
소하동 일부를 석수2동에 편입
- 1989년 5월 1일 시조례 제931호(1989 4 10 공포)로 출장소
(만안 동안)설치
- 1990년 1월 1일 시조례 제 1000호(1989 12 20 공포)로 석수2동을
석수2동과 3동으로 분동(19개동)
- 1990년 5월 20일 시조례 제1027호(1990 5 10 공포)로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
으로 분동(21개동)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로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각각 분동(23개동)
-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1992 10 1 공포)로 만안 동안
출장소 설치
-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1993 1 15 공포)로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분동(26개동)
-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 1285호(1993 5 20 공포)로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동(28개동)
-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로 안양시 안양3동
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
으로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각각 행정동 분동
(31개동)
-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 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시간
(市間) 일부 변경
 - 만안구 안양동 일부 → 군포시 편입
 - 동안구 호계동 일부 → 군포시 편입

- 동안구 평촌동 일부 → 의왕시 편입
- 군포시 산본동 일부 → 만안구 안양동 편입
- 1994년 12월 26일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로 법정동
경계변경
 - 만안구 안양동 일부 → 박달동 편입
 - 만안구 박달동 일부 → 안양동 편입
 - 동안구 경춘동 일부 → 호계동 편입
-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법정동 경계조정
 - 동안구 관양동 일부 → 비산동 경춘동에 편입
 - 동안구 평촌동 일부 → 관양동에 편입
-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행정동 경계변경
 - 만안구 안양2동 일부 → 안양3동에 편입
 - 만안구 안양5동 일부 → 안양1동에 편입
 - 만안구 안양5동 일부 → 안양4동에 편입
 - 동안구 갈산동 일부 → 신촌동에 편입

안양시 정사 ① (1988)

한편 1973년 7월 1일 안양읍에서 시로 승격된 안양시는 새 정사가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안양읍 청사에서 개정식을 갖고 일시 업무를 보다가 시 승격 2주년이 되는 1975년 7월 1일에 안양6동 530에 새 건물을 짓고 독립된 정사에서 시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뒤 시세 신장에 따라 기구 확장 등에 따라 경춘신도시 개발지인 관양동 1590에 새 정사를 신축하여 1996년 11월 11일 의회청사와 함께 이전되어 다음날 부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다



안양시 정사 ② (1996)

제2절 구(區)와 동(洞)의 연혁

1. 구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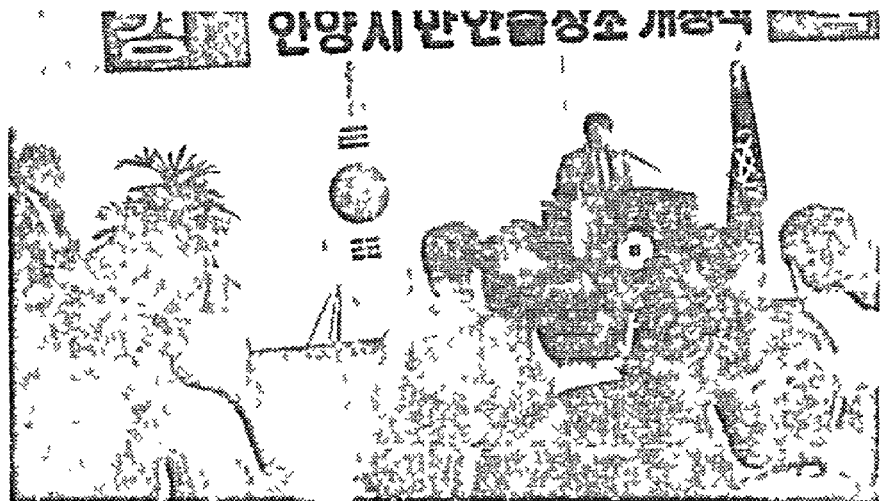
1) 만안구 (萬安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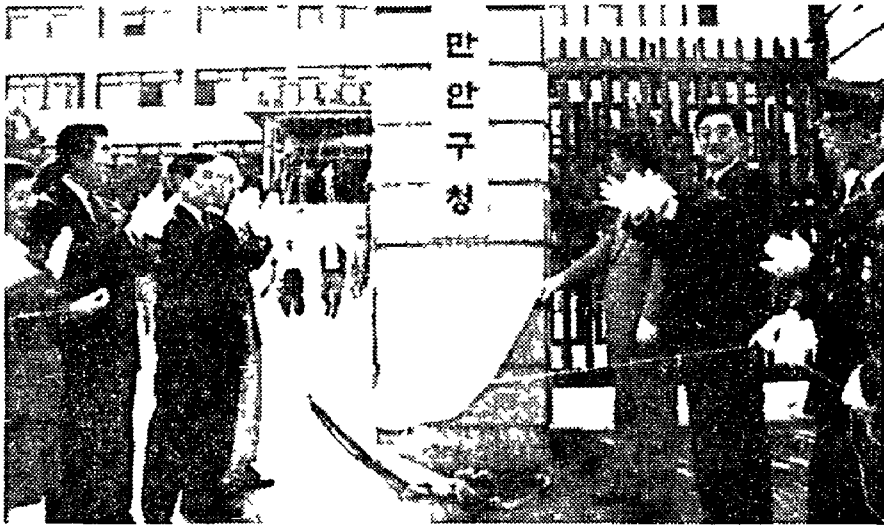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안양리(현재의 안양1동~안양9동)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지역이었고 박달리(현재의 박달1동~박달2동) 안양리(현재의 석수1동~석수3동)는 시흥군 동면(始興君 東郡) 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시흥군 안산군 과전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자 안양리는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으로 박달리는 시흥군 서면(始興郡 西面)으로 안양리는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에 속했다가 안양리는 1914년 10월 1일 부령 제235호에 의거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으로 되었다가 다시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박달리와 안양리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5호에 의거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리가 있으므로 신안양리로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안양리는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으로 되었고 신안양리는 석수동으로 박달리는 박달동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편익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각각 분동하였고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 739호(1985 11 11 공포)에 의거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분동하였으며 1987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에 따라 광명시 소하동 일부가 석수2동에 편입되었다

1989년 5월 1일에는 시 조

만안읍장소 개정식(1989)★





만안구청 현판식(1992)★

레 제931호(1989 4 10 공포)에 의거 안양1동 ~ 안양6동 안양8동 석수1동 석수2동 박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90년 1월 1일 시 조례 제1000호(1989 12 20 공포)로 석수2동을 석수2동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다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1992 10

1 공포)에 따라 만안구(萬安區)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동안출장소의 안양7동이 편입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의거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각각 분동한데 이어 동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안양동의 일부가 군포시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동령에 따라 군포시 산본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에 따라 안양동의 일부가 박달동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박달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는 등 법정동간에 경계 변경이 있었다

■ 만안구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와 63년(475) 울목군(栗木郡)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박달리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博達里 新安養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安養市 安養洞 石水洞 博達洞)
- 1979 4 28 안양6동(安養六洞)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 석수동(石水洞)을 석수1동(石水一洞) 석수2동(石水二洞)으로 분동
- 1985 11 5 안양6동(安養六洞)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
- 1987 1 1 광명시 소하동 일부 석수2동에 편입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
- 1990 1 1 석수2동(石水二洞)을 석수2동 석수3동(石水三洞)으로 분동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로 승격
- 1994 12 26 안양동 일부 군포시에 편입 군포시 산본동 일부 안양동에 편입 안양동 일부 박달동에 편입 박달동 일부 안양동에 편입

만안구정사인 옛 시흥군정사의 준공식(1978 4 14)

만안구는 정조 19년 (1795)에 과천현과 금전현(시흥현)의 현계인 안양천 위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한 후 정조의 능행로정이 시흥 - 안양을 경유하는 이른바 시흥로정(始興路程 금천로정)으로 바뀐 후 1905년에 경부선부설로 안양역이



설치된데 이어 1932년에 안양3동 대농단지에 조선직물을 건립한 후 곧 이어 조선건직 금성방직 등 유수의 공장건설로 안양 경제계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같은 해 비산공원(안양유원지)에 석수동수영장을 건설했는가 하면 이해 안양9동의 율목동마을에서 있었던 전국부인밤줍기대회는 안양의 밤의 성가를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더우기 안양2동은 안양포도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또 안양의 뿌리인 안양사를 비롯한 안양을 대표하는 각종 문화재 대부분이 이곳에 있다

구청사는 옛 시흥군의 정사로 1979년 2월 15일에 건립되었는데 부지면적 8 999

m²에 연면적 6 372 37m²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로 지상 6층이다 1988년 12월 31에 시흥군이 해체된 후 1989년 5월 1일에 만안출장소의 개소에 앞서 정사로 사용키 위해 3 46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1996년 9월 30일 현재 만안구의 행정조직은 구정장 부구청장 총무과 시민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사회사업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 9개과와 36개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36 60km² 세대수 86 087세대 인구 261 796명 인구밀도 1km²당 7 152명이다 교육기관은 대학 2개교 전문대1개교 고등학교11개교 중학교 7개교 초등학교 11개교가 있다 그밖에 주택은 48 499동 상수도 18 474전 하수도 399km 의료시설 343개소 전화 151 749대 금융기관 111개소 자동차 50 120대 주차장 40 730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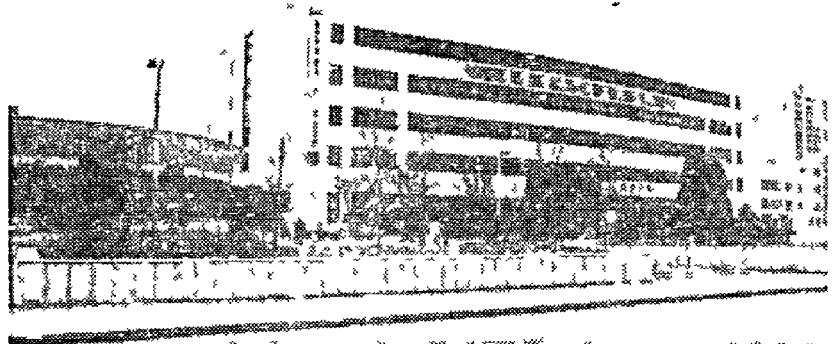
만안구의 구명(區名)은 만안교(萬安橋)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뜻은 “정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이 다리를 편안히 지났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만백성에게까지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만만년토록 성은(聖恩 정조)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 혜경궁 홍씨)을 기리기 위함”이다

2) 동안구 (東安區)

동안구는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하서면(果川郡 上西面 下西面) 지역으로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 안산 과전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자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으로 되었고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로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으로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비산리는 비산동(飛山洞)으로 일동리는 관양동(冠陽洞)으로 이동리는 경촌동(坑村洞)으로 호계리는 호계동(虎溪洞)으로 각각 개정되었다 그뒤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1982 8 5 공포)로 비산동을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하였고 이듬해 10월 5일 시 조례 제600호(1983 9 14 공포)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한 후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739호(1985 11 11 공포)에 의거 호계1동을 호계1동과 호계3동으로 분동하였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1989 4 10 공포)로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가 개소되어 안양7동 비산1동 비산2동 관양동 경촌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등 8개동을 관할하였다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1990 5 10 공포)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이후 경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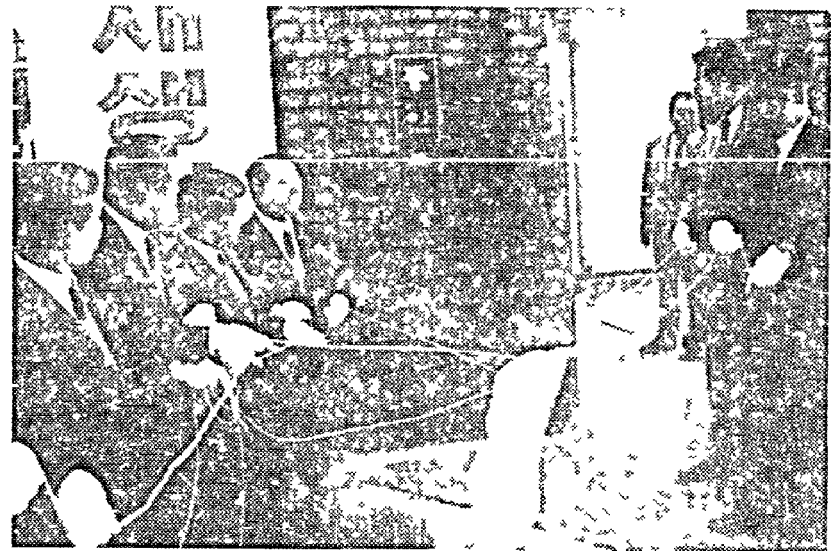
도시의 개발계획으로 신도시내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인구의 급증으로 분동이 속속 이루어 졌다 즉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復興洞)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법계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1992년 10월 1일에는 동안출장소가 폐지됨과 동시에 동안구(東安區)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안양7동이 만안구에 편입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1993 1 15 공포)로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富林洞)으로 경춘동을 경춘동과 평안동(坪安洞)으로 법계동을 법계동과 신촌동(新村洞)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이어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1993 5 20 공포)로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達安洞)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하였고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따라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貴仁洞)으로 분동하여 17개동이 되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시간(市間)에 행정구역 일부 변경이 이루어져 호계동 일부가 군포시에 평춘동 일부가 의왕시에 각각 편입되었고 동년 같은날에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로 법정동의 경계변경이 이루어져 평춘동의 일부가 호계동으로 편입되었다 또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관양동 일부가 비산동 평춘동에 평춘동 일부가 관양동에 편입되는 등 법정동간에 경계조정이 있었고 동년 같은 날에는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갈산동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되었다



동안구청사(1996 동안구 제공)

동안구청 편판식(1992)★



■ 동안구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安養市 飛山洞 冠陽洞 坪村洞 虎溪洞)
- 1982 9 1 비산동을 비산1동(飛山一洞)과 비산2동(飛山二洞)으로 분동
- 1983 10 1 호계동을 호계1동(虎溪一洞)과 호계2동(虎溪二洞)으로 분동
- 1985 11 5 호계1동을 호계1동과 호계3동(虎溪三洞)으로 분동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
- 1990 5 20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
- 1992 5 1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復興洞)으로 분동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분동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
- 1993 1 15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富林洞)으로 분동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坪安洞)으로 분동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
- 1993 5 20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達安洞)으로 분동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
- 1994 7 1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貴仁洞)으로 분동
- 1994 12 26 호계동일부 군포시(軍浦市)편입
평촌동일부 의왕시(儀王市)편입
평촌동일부 호계동에 일부
- 1996 1 1 관양동일부 비산동 평촌동에 편입
평촌동일부 관양동편입
갈산동일부 신촌동편입

동안구의 역사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될듯 하다 즉 1990년 명지대박물관에

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귀인동에서 찌르개 짝개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뒤 10세기경인 정동기시대에 귀인·평촌 갈산동에서 다량의 지석묘가 발견된바 있으며 백제초기의 주거지도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인 11~14세기에는 비산동에서 정자 백자가 생산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공용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던 원(院)이 설치되어 서울 - 과천 - 수원 -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주요 교통로였으나 조선조 정조가 1795년에 안양전위에 만안교가설로 정조의 능행이 시흥 - 안양을 잇는 노장으로 바뀌자 이곳 일대는 점차 퇴락하기 시작하다가 1989년 부터 이른바 평촌신도시개발로 대단위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전철역 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지자 인구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안양의 신중심지역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평촌신도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도시 개발이전의 평촌지구(1970년대)

평촌신도시 현황

공급세대수(아)	합 계		아 파 트		단 독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42 000	47,133	154 825	45 796	150,796	1 337	4 029

* 미입주 부림동 세경 1 292세대

단지별 현황

동명	단지명	세대수	인구	비고
계	11개 단지	45 796	150 796	
부흥동	관악단지	4 445	14 893	
	은하수단지	2 650	8 581	
달안동	새별단지	6 105	18 142	
부림동	공작단지	3 635	11 783	
	한가람단지	3 582	11 692	
평안동	초원단지	6 892	22 437	
	양촌단지	2 127	7 243	
귀인동	꿈마을단지	3 672	12 733	
범계동	목련단지	5 872	19 532	
신촌동	무궁화단지	4 178	14 481	
갈산동	샘마을단지	2 638	9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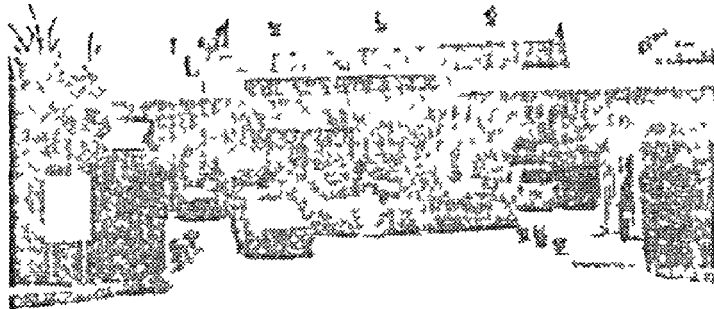
단독주택 입주현황

계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	비고
1 337 / 4 029	747 / 2 180	283 / 867	307 / 982	

1996년 9월 30일 현재 동안구의 면적은 21.9km² 세대수 105,250세대이며 인구는 332,751명이다 행정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9개과 36계로 되어있고 행정동은 비산1동을 비롯하여 17개동이다 도로 시설물은 교량 15개 지하차도 4개소 육교 17개소 지하보도 14개소 가로등 2,939 등이고 주차장(노상)은 23개소에 면적은 58,917m²이다 자동차는 69,048(승용차 56,427대 승합차 3,979대 화물차 8,570대 특수자동차 72대)이고 전화기 보유는 115,412(일반전화 113,862대 공중전화 1,550대)이다 또 상수도 급수인구는 325,550명으로 보급율이 97.8%에 이르며 교육기관은 대학교 1개교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2개교 초등학교 21개교로 모두 41개교이다 금융기관은 은행 57개점포 상호신용금고와 증권이 10개점포 새마을금고 6개점포이다 그밖에 파출소 9개소 소방파출소 4개소이고 기업체는 464개 업체이며 종합병원 2개소 의원 124개소 등이다

동안구정은 비산동 1111에 위치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대지면적 17 903
 m²(5 415평) 건축연면적
 12 329m²(3 729평) 건축면
 적 2 529m²(756평)이다 사
 업비는 17 549백만원이 소
 요되었다



동안출장소 정사(1992)★

1989년5월 출장소가 설
 치되기에 앞서 안양시로 부
 터 필자(이승연)에게 출장소
 명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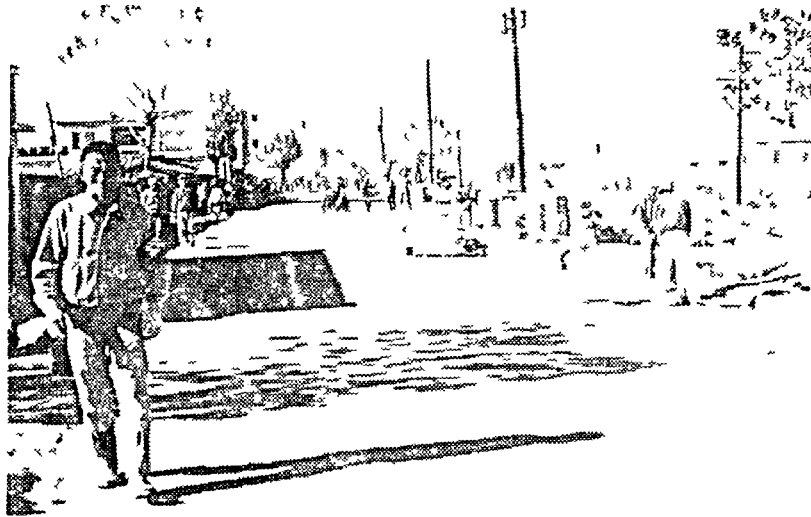
었다 그후 우연한 기회에 안양시에 들렀더니 만안 동안출장소로 명명되었다는 소식
 을 접하고는 저속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덕'이 어질 '인(仁)'자와
 큰 '덕(德)'자 이므로 한자로 보면 더할나위없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원래
 의 뜻은 '내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시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식기를 어려서 거세
 하여 후에 장성하여서는 궁중에서 온갖 영예를 누렸지만 인간으로서는 일생을 불행한
 삶을 영위하지 않았는가 인덕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근교였던 관계로 조선시대에는 내
 시의 집단거주지였다 내시중에 과전과하면 이는 곧 인덕원내시를 일컬었다 굳이 '
 인덕'의 의미를 살리려했다면 '인덕원출장소'로 해야 옳았다 행정편의상 두글자로
 하다보니 '인덕'이 된 모양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사리원과 조치원이 서로
 승격되었을 때 '사리시' 조치시로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시명일까?

다행이도 필자(이승연)의 요청을 안양시에서 받아들여 곧 동안출장소로 개칭했는
 데 동안(東安)은 '동쪽 안양'이란 뜻일게다

2 동의 연혁

1) 안양1동 (安養一洞)

안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안양리(安養里)와 발사
 리(撥舍里)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
 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 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남부시장 입구에서 안양역 방향을 바라보고 촬영한 모습 길 양옆으로 보도블럭 공사가 한창이고 오른쪽 건물은 태평방직이다 (1972)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 (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1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1동(安養一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 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 1392호에 따라 안양5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 안양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을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을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발사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撥舍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1 5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一 五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1동(安養市 安養一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場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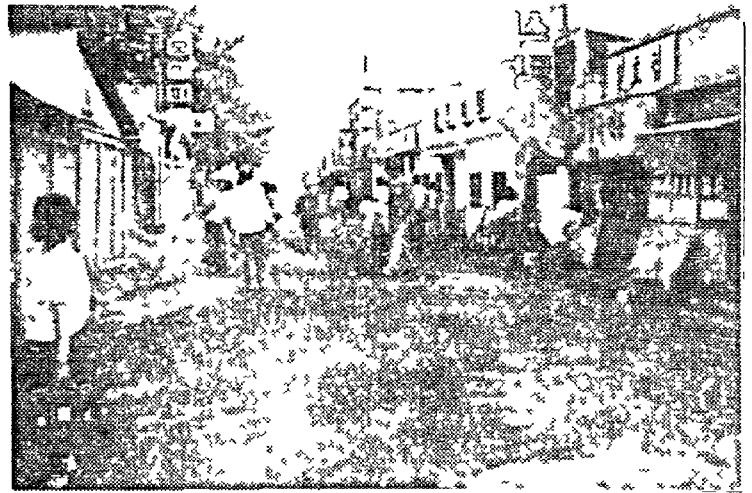
안양1동(이하 안양8동 포함)의 동명유래는 안양시의 유래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안양1동은 동(東)으로 비산1동 서(西)로 안양4동 남(南)으로 안양5동 안양7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남부동(南部洞) 시대동(市袋洞 舊市場) 중앙동(中央洞)이 있다

안양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1동은 교통 금융 상가(특히 유흥상가)가 운집해 있어 명실공히 '안양의 1번가'로 통할 만큼 가장 변화한 곳이다. 이 곳이 안양의 중심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200년 전인 정조 19년(1795) 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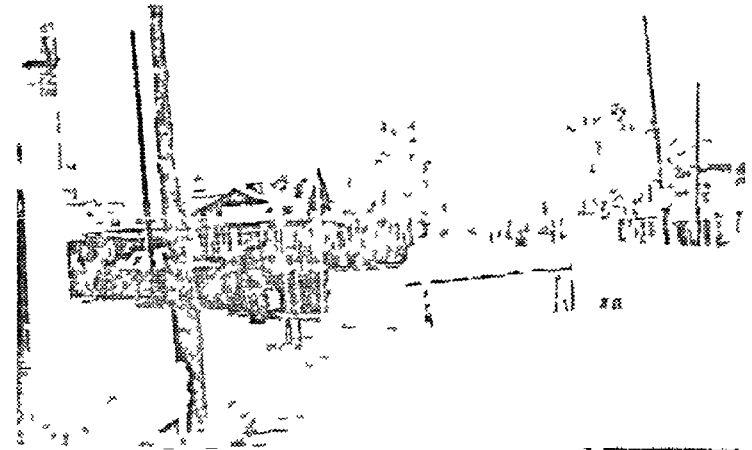
정조는 부왕(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전장하고 능행을 위해 유래정 뒤(안양1동 674-67)에 안양행궁(安養行宮)을 짓고 능행(陵幸)시 휴게(休憩)했다. 그 후 부터 오늘날의 만안로가 개설되었고 이어 구 한말에는 미나리밭이었던 자리에 경부선

안양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 옆(안양1동 674-271)으로 이전되고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정사가 뉴코리아호텔 자리(안양1동 674-251)로 이전하자 곧 이어 안양경찰서(안양1동 674-245)와 안양읍사무소(안양1동 674-208) 등 관가의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또 1924년에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앞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역 앞에 안양우체국 안양연초조합 등이 설립되었는가 하며 1926년에는 전동아파트 앞(시대동 구시장)에 안양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이 다져졌고 1929년에는 역시 시대동 일대에 안양지방에서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는 등 오늘날 안양의 발전은 안양1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양양조장 뒷길(1970)



만안로 신도예식장 입구에서 안양역에 이르는 제지역(1972)

관내의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역(안양1동 641) 안양파출소(안양1동 641-3)가 있다 아파트는 진흥아파트(안양1동 97-3)가 27개동에 2 276세대로 1984년 3월 31일에 입주했고 정원아파트(안양1동 80-4)가 4개동에 183세대로 1978년 8월 10일에 입주했다 안양1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0 65km 세대수 4 648세대 인구수 13 905명 인구밀도 1km²당 21 392명이다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안양 남지점(안양1동 674) 안양1동 새마을금고(안양1동사무소) 등이 있다 안양1동 사무소(1979 4 3 건립 부지면적 429 4m² 연면적 1 225m²)는 안양1동 674-207에 있다

2) 안양2동 (安養二洞)

화단극장 앞에서 만안초등학교를 바라본 모습(1972)



안양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果川郡 下西面 石手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2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2동((安養二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로 동의 일부가 안양3동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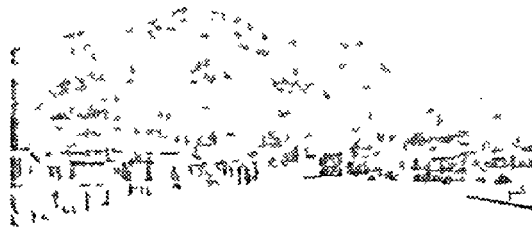
■ 안양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석수동
(果川郡 下西面 石手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2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二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2동(安養市 安養二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안양2동 일부 안양3동에 편입



화단극장앞 삼거리 왼쪽 건물이 연미예식장이다 (1972)



안양유원지 삼거리에서 비산동 방향으로 산업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1972)

안양2동은 동(東)으로 비산1동 서(西)로 박달1동 남(南)으로 안양1동 북(北)으로 석수1동 석수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북부동(北部洞)과 석수동(石手洞 石水洞)이 있다 조선시대 금천현(衿川縣)과 과전현(果川縣)의 현계(縣界)에 위치한 안양2동은 안양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안교(萬安橋)가 소재해 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극한 효성으로 그 이름이 높았던 정조가 능행을 위해 1795년에 가설한 이 다리는 본래 나무다리였던 것을 홍예석교로 가설한 후 만인이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 다니라는 뜻으로 '만안교(萬安橋)'라고 명명하고 가설하던 해(1795) 음력 2월 13일 어머니(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거행키 위해 친히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이 다리를 건넜다 그 후 보잘 것 없던 이 다리가 유명해져 정조의 능행을 과전로정에서 시흥~안양으로 노정을 바꾼 후부터 과전에 딸린 작은 마을이 오늘날에는 60만의 거대도시로 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삼성산 아래에 있는 안양유원지(비산공원)는 수도권의 위락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오끼(沖

井)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는 최초로 이곳에 포도를 재배해 안양의 명물로 명성을 높였으며 기독교육원은 안양의 첫 사회복지시설로 고아의 할아버지로 정송을 받았던 오금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관내에는 안양여중 고(안양2동 840-2)를 비롯하여 양명고(안양2동 산21) 양명여고(안양2동 산21) 만안초교(안양2동 848-1)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체는 13개업체이며 안양을 대표하는 안양전 삼성전 수암전 삼막천 등이 모두 안양대교에서 합류된다 아파트는 삼영1차(안양2동 15-16) 삼영2차(안양2동 34-1) 대우아파트(안양2동 70) 삼성아파트(안양2동 32-1) 향림이파트(안양2동 46-5)가 있다

안양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2 87km² 세대수 9 457세대 인구수 28 399명 인구밀도 1km²당 9 895명이다 안양2동사무소(1990 7 4 건립 부지면적 2 114 9m² 연면적 3 234 32m²)는 안양2동 842-207에 있다

3) 안양3동 (安養三洞)

옛 금성방직터에 주택단지로 변모된 모습(1993)★

안양3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후두미동(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安養三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의거 안양2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 안양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을목군(栗木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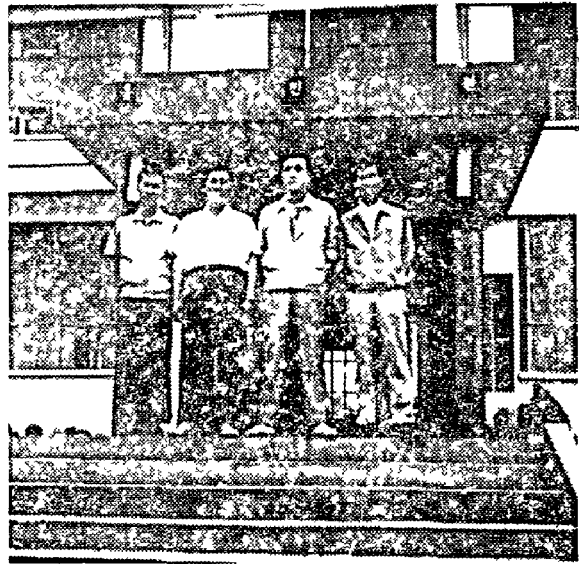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후두미동
(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3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3동(安養市 安養三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2동 일부 편입

안양3동은 동(東)으로 안양1 4동 서(西)로 안양3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박달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양지동(陽地洞)이 있다

안양3동은 행정구역의 80%가 아파트(오송아파트 정우 진흥 성원 풍화) 및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이(旭)학교가 설립된 후 안양공고(안양3동 795) 안양여상(안양9동 산41-1) 안양예고(안양3동 산42-1) 안양전문대학(안양3동 산39-1) 안양서초등학교(안양9동 931) 등의 교육기관이 속속 설립되어 안양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특히 1928년에는 엄기승(嚴基承)이 안양3동사무소 부근에 안양 최초의 회사인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를 설립하였고 이어 1932년에는 조선직물(朝鮮織物)에 들어섰고 광복이 되자 그 자리에 금성방직(金星紡織)이 설립되어 오늘날 안양이 상공업 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가 되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 km² 세대수 7 019세대 인구수 21 798명 인구밀도 1km²당 21 798명이다 안양3동사무소(1994 1 14 건립 부지면적 315m² 연면적 363 77m²)는 안양3동 1195-33에 있다

4) 안양4동 (安養四洞)

안양4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장내동(果川郡 下西面 培內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4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4동((安養四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5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음민관(1960년대)

■ 안양4동의 변천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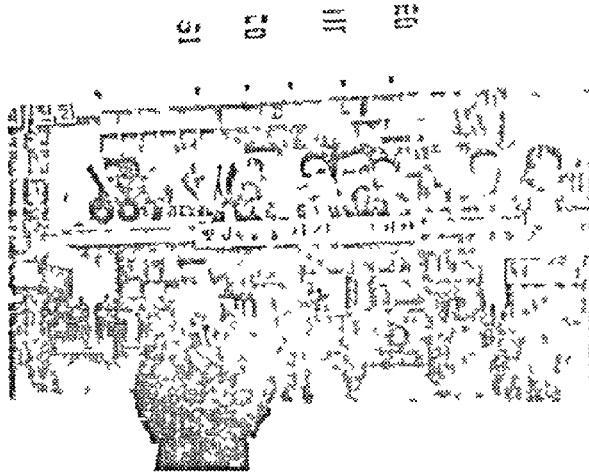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장내동
(果川郡 下西面 培內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4 5리(始興郡 安養邑 安養四 五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4동(安養市 安養四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 편입



중앙시장 입구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1970)

안양극장(1971)



안양의 상권 중심지인 안양4동은 동(東)으로 안양1동 서(西)로 안양3동 남(南)으로 안양5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장내동(塲內洞)이 있다 안양4동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동산(栗園)이었다 특히 지금의 벽산소공 일대에는 좌백울원(佐白栗園)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유료로 밤줍기대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이 곳의 자연취락인 장내동이란 취락명도 밤나무 안에 민가가 옹기종기 있다 하여 유래될 만큼 전지역이 밤나무밭이었다

이렇듯 밤동산이었던 안양4동이 점차로 개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삼덕제지 앞에 안양변전소가 설치된 후 삼덕제지와 삼길양산 등의 공장과 1954년 전주교 장내동

성당 등이 건립되면서 부터이다 그 중 장내동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에 밤나무밭 6 657평을 교회부지로 매입한 후 1954년 서울교구의 구천우(具天祐)신부에 의해 신부가 거처할 2개의 방이 달린 목조 함석지붕 성당(24평)을 건축하고 노기남 주교의 주례로 축성식을 가졌고 이어 동년 9월 7일 구천우 신부가 안양으로 이사했는데 이날이 장내동성당의 장설일로 이는 당시 시흥군 안양읍 유일의 천주교 교회였다 2년 후(1956) 5월 4일 동 성당내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 개설되어 안양지역 유아교육사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5 16군사쿠데타 후인 1961년 11월 6일에는 안양1동 시대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중

양동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中央市場)으로 명명된 후 중앙로의 개통과 이어 벽산쇼핑과 풍물시장이 개장되자 한때는 안양시민의 생활필수품의 약 60%가 유통될 만큼 명실공히 안양의 시장 상가지역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아파트는 화양아파트(안양4동 709-16) 벽산아파트(안양4동 627-72)가 있다

안양4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0.31km² 세대수 2,988세대 인구수 8,586명 인구밀도 1km²당 27,535명이다 안양4동사무소(1995. 7. 12. 건물 부지면적 381m² 연면적 705.22m²)는 안양4동 711-399에 있다

5) 안양5동 (安養五洞)

근명여상안 도로(1970년대조)★

안양5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



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6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5동((安養五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동의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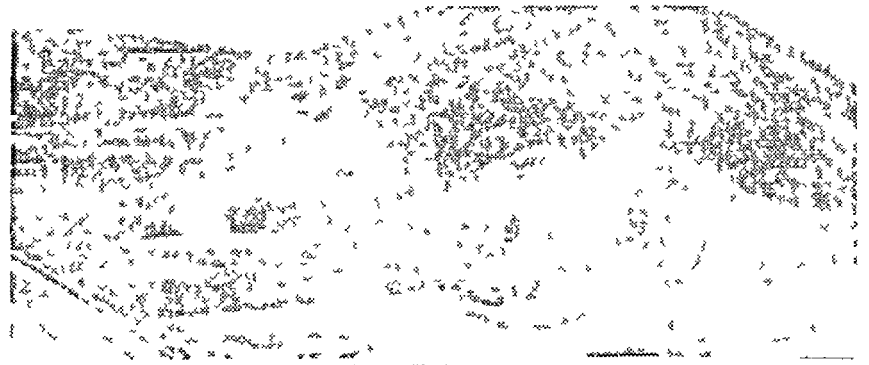
■ 안양5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6리(始興郡 安養邑 安養六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5동(安養市 安養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

안양5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안양6동 북(北)으로 안양4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교하동(교화동) 과 잔우물 등이 있다 안양의 중심부를 남 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따라 서편에 위치한 잔우물 과 그 동편에 위치한 교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양5동은 현대적 의미에 있어 안양의 첫 교육시설인 안양초등학교(안양5동 387-1)가 설립되자 안양교육의 메카였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양의 교육은 불모지여서 먼 거리에 있는 과천초등학교(과천시 소재)와 안산초등학교(안산시 소재)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1927년 엄기승(嚴基承 안양산업사 사장) 조한구(趙漢九 초대 서이면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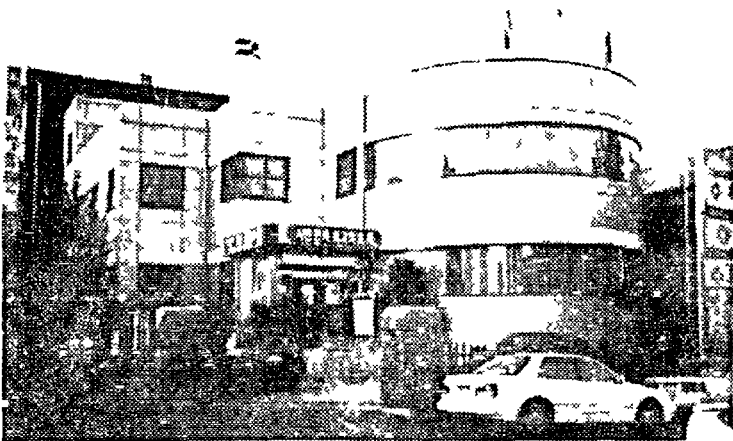
충혼탑 주변 택지조성(1970)★

초대안양읍장 역임) 등 안양유지의 눈부신 활동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했으나 건립에 필요한 자금염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아일보」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연일 보도하자 전국에서 모금이 답지하여 신문지상에 이들의 성명과 성금액이 보도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경이 국민의 단합을 이유로 방해했으나 국민들의 즐기찬 성원에 힘입어 1927년 12월 20일 개교(안양초등학교)를 보았는데 이것이 안양교육의 시발이 되었다

이어 근명여중 상고(안양5동 708-197) 안양대학(안양5동 산103-101) 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섰고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전화국(안양5동 445) 안양우체국(안양5동 613-31) 안양소방서(안양5동 472-2) 안양등기소(안양5동 456-6)이 있다 오늘날의 안양5동은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고 아파트로는 동덕 동명 장미 한남아파트가 있으며 주요기관과 각종 편의 시설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어느 농부의 지성에 의해 샘물이 솟았다는 잔우물 일대는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현대식 주택들이 뽐뽐히 들어 차 있어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변모되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52km² 세대수 5,231세대 인구수 15,160명 인구밀도 1km²당 29,153명이다 안양5동사무소(1977. 12. 19 건립 부지면적 264.50m² 연면적 305.64m²)는 안양5동 542-307에 있다

6) 안양6동 (安養六洞)



안양6동사무소(1996)

안양6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이어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로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7동(安養七洞)으로 분동하였고 다시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 안양6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79 4 28 안양7동(安養七洞)분리
- 1985 11 5 안양8동(安養八洞)분리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안양6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안양8동 북(北)으로 안양5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소골안(小谷洞)과 주접동(住接洞)이 있다 행정의 1번가로 불리워지는 안양6동은 조선

후기에 정조가 부왕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전장하고 능행을 위해 지금의 안양경찰서 뒤에 정각(亭閣 政閣)을 짓고 잠시 휴게했다는 연유로 '주접동(住接洞)'이란 마을명이 유래되었고 이어 한국전쟁 직후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자리의 난민들을 수리산 골짜기에 집단 이주시키면서 '소골안(小谷洞)'이란 취락이 생겼다

이곳의 관가는 1938년에 밤나무밭이었던 자리에 안양식림묘포(→ 경기도임업시험장)를 설치한 후 수의과학연구소(안양6동 480) 국립식물검사소(안양6동 433-1) 시흥군 임업협동조합(안양6동 532-11) 농수산물검사소(안양6동 433-21) 한국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안양6동 437) 국립종자공급소(안양6동 433) 안양세관(안양6동 584-1) 안양시의료보험조합(안양6동 504-1) 등과 1975년에 안양시정사(안양6동



옛 안양6동사무소 안양읍 당시 리사무소였었다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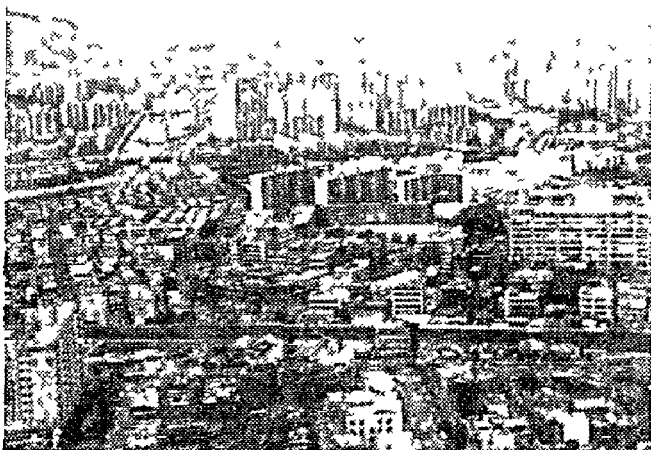
안양경찰서 일대(1972)

530) 1977년에 시흥군정사(→ 만안구정 만안구보건소 안양6동 477-1) 안양세무서(안양6동 582-4) 안양상공회의소(안양6동 502-2) 등이 들어서면서 관가의 중심지가 되었고 1979년에 안양7동 1985년에 안양8동을 각각 분리시켰을 만큼 인구의 급격한 주세를 보였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신성중 신성고(안양6동

587-68) 제일실업고(안양6동 541-33)가 있고 기업체로는 오토 갤러리 영진교동 동양유리 신흥목재 등 4개업체가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안양중앙지점(안양1동 674-93) 국민은행분소 남부단위농협 6동새마을금고 소곡새마을금고 등 5개소가 있고 아파트로는 성업 동성 동아 삼익 미주아파트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47km² 세대수 6 763세대 인구수 19 523명 인구밀도 1km²당 13 280명이다 안양6동사무소(1994 2 17 건립 부지면적 514m² 연면적 867 22m²)는 안양6동 437-407에 있다

7) 안양7동 (安養七洞)



안양7동 전경(1993년)★

안양7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덕천마을 지역을 안양7동(安養七洞)이라 칭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조계 제 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 안양7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79 4 28 안양시 안양7동(安養市 安養七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안양7동은 동(東)으로 부흥동 서(西)로 안양6동 남(南)으로 호계2동 북(北)으로 안양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덕천마을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으로 대부분 농경지였었다가 일제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에 살던 원정상(元貞常)이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허허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덕전 슈퍼앞 도로공사(1980)★

하여 '벌터(坪村)'라 칭했다가 1977년 7월 8일 이른바 7 8 홍수 때 안양천의 범람 후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자 주변인구의 급증으로 크게 번장되었다

1978년 마을의 유지들에 의해 '덕천마을'로 개정되었고 이듬 해 5월 1일 안양6동에서 분리되어 안양7동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안양전을 끼고 만안로 관악로 명학로 및 경부철도가 관통되어 1960년대 부터 대 중소기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면적의 70%가 500여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인구가 과밀하며 토착민보다 외부 유입 주민이 절대 다수인데다가 저소득층의 과다유입 빈번한 이동이 있는 지역이다 교육시설로는 덕전초등학교(안양7동 192-5) 풍명실업고(안양7동 199)가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노동부 안양사무소(안양7동 190-10)가 있고 아파트로는 준마아파트(안양7동 192-9) 은하아파트(안양7동 159-7) 동아아파트(안양7동 190-11)가 있다

안양7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5km² 세대수 7 221 세대 인구수 22 411명 인구밀도 1km²당 21 343명이다 안양7동사무소(1980 4 15 건립 부지면적 620 5m² 연면적 683 72m²)는 안양7동 126-4에 있다

8) 안양8동 (安養八洞)

안양8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시 조례 제739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명학동 곡내동 상

명학동마을 앞에서 여인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1971 전우회원 이석범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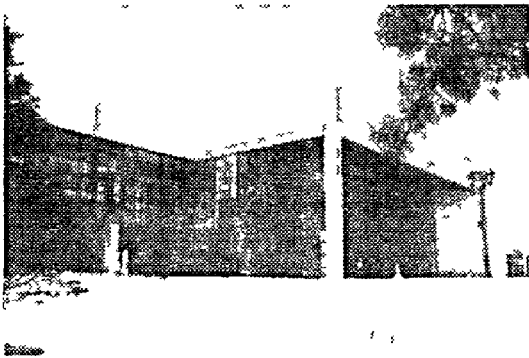
록마을의 제 지역을 '안양8동(安養八洞)'이라 칭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 안양8동의 변천 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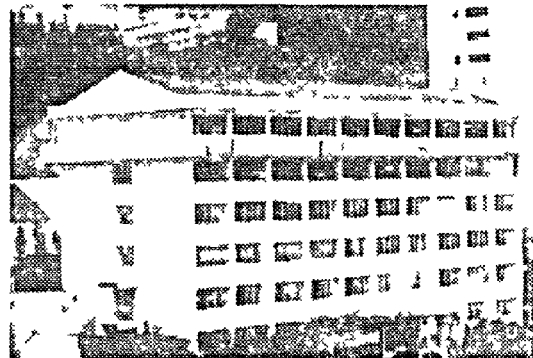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85 11 5 안양시 안양8동(安養市 安養八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안양8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호계2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안양6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골안(谷內洞) 명학동(鳴鶴洞) 상록마을이 있다 안양 서남쪽에 위치한 안양8동은 인조조의 명신

안양문예회관(1990년대)



성결대학교★



심기원(沈器遠)이 부친(심간)의 묘를 비산1동 소재 대림공전 뒤에 쓰기 위해 광증을 파던 중 암반 위에 앉아 있던 학이 이곳 명학초교 아래에 있는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다는 연유로 명학동이란 취락명이 취해진 이래 안양의 외곽지대로 안양6동 일대에 관가가 생기면서 함께 번창되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관모봉과 명학봉의 빼어난 산세에 미도 명학아파트를 비롯하여 현대연립 귀빈타운 효성연립 삼성연립 동남연립 등의 주택이 집중된 안정된 주거지이며 명학초등학교(안양8동 산49-13) 성문여자중(안양8동 산117-1) 성문여고교(안양8동 산147-2) 성결대학교(안양8동 산147-2) 등의 교육기관과 안양문예회관(안양8동 550)이 위치해 있어 교육 문화권의 중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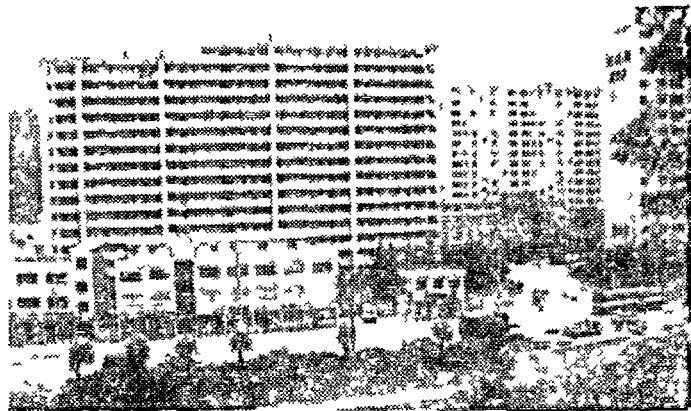
또 관악산과 관모봉 수리산을 마주한 중간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하여 1989년 안양시에 의해 이곳 상록마을에서 안양3동 지루골에 이르는 연장 7.7km 를 산림욕장을 개설해 신체적 정신적 건전생활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8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14km² 세대수 5,184세대 인구수 15,394명 인구밀도 1km²당 13,503명이다. 안양8동사무소(1987. 5. 8 건립 부지면적 661.2m² 연면적 706.69m²)는 안양8동 572-1에 있다.

9) 안양9동 (安養九洞)

안양9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安養三洞)이 되었다. 1985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

프라자아파트 (1993) ★



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에 따라 안양3동을 분동해 '안양9동(安養九洞)'이 되었다

■ 안양9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후두미동
(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3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3동(安養市 安養三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안양9동(安養市 安養九洞)

안양9동은 동(東)으로 안양5동 안양6동 안양8동 서(西)로 안산시 수암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안양3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능골(陵谷) 담배촌 병목안(後頭尾洞) 새마을 안골(內谷) 울목동(栗木洞) 창박골(蒼岩洞) 등이 있다

안양시의 서부외곽지역으로 동 전체면적의 84.7%가 임야로 되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히 요망되는 지역이다 아파트로는 프라자아파트(안양9동 762-2)를 비롯하여 우성아파트(안양9동 730-10) 정호아파트(안양9동 734-1) 뉴 골든아파트(안양9동 1024-1)가 있다

특히 이곳은 1837년 7월경에 우리나라의 두번째 신부로 알려진 최양업(崔良業)의 부친 최경환(崔京煥)이 수리산의 연봉인 태양산 아래에 정착하여 안양은 물론 인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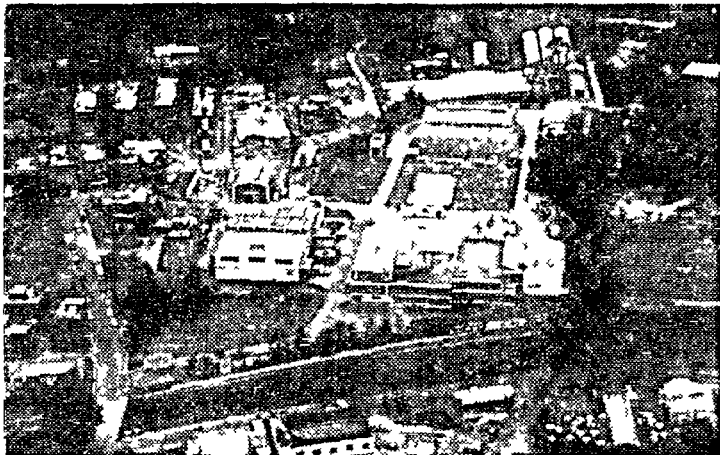
수리산산림욕장(1990년대)

군포 의왕 안산 시흥지방에 전주교를 잉태시켰다 또 수리산과 수암봉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1989년 안양시에 의해 '수리산산림욕장'을 개설 시민들에게 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안초교(안양9동 730) 양지초교(안양9동 980)와 신안중(안양9동 728) 안양서여중(안양9동 1060) 안양서여중(안양9동 728) 등이 소재해 있다

안양9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6.42km² 세대수 5,333세대 인구수 17,047명 인구밀도 1km²당 2,655명이다 안양9동사무소(1995.8.28 건립 부지면적 855m² 연면적 894m²)는 안양9동 995-21 외 3에 있다

10) 석수1동 (石水一洞)

유유산업(중앙)과 그 주변 민가(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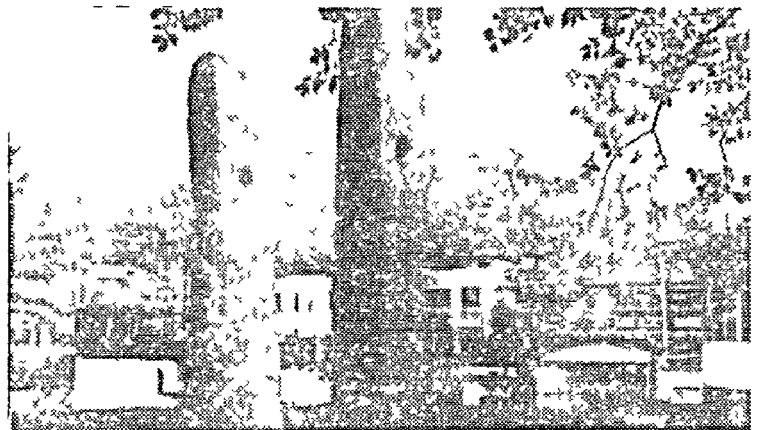
석수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제22대 정조 19년(1795) 음력 윤 2월 1일에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정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 신촌 삼막골 구룡동 지역을 신안양1리(新安養一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 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삼막골 신촌 구룡마을 등의 제 지역을 '석수1동(石水一洞)'이라 하였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 석수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倭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근내면 안양리
(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1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一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석수1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석수2동 남(南)으로 안양2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구룡마을(九龍洞)과 삼막골(三幕洞)이 있다 서울의 관문으로 안양 북단에 위치한 석수1동은 안양의 시원지(始源地)이자 불교문화의 발상지로 문화재의 보고이다 안양의 대표적 문화재인 중초사지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제4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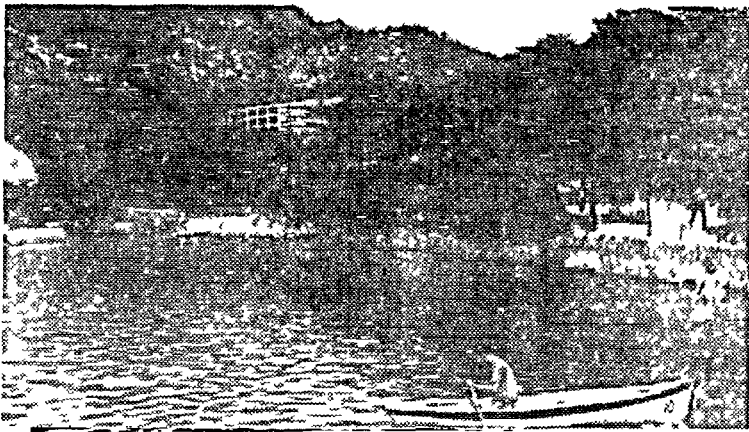


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보물 제4호)와 중초사지 삼층석탑 (中初寺址 三層石塔 보물 제5호였으나 1996년 12월 해제됨))를 비롯하여 삼막사 대웅전(三幕寺 大雄殿 문화재 자료 제38호 1990년에 소실되어 1991년 4월에 해제됨) 삼막사 명부전(三幕寺冥府殿 문화재자료 제60호)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男女根石 민속자료 제3호) 삼막사사적비(三幕寺事蹟碑 유형문화재 제125호) 삼막사 삼층석탑(三幕寺三層石塔

유형문화재 제112호) 삼막사 동종(三幕寺銅鐘 유형문화재 제95호 1990년에 소실되어 1991년 4월에 해제됨) 삼막사 마애삼존불상(三幕寺磨崖三尊佛像 유형문화재 제94호) 삼막사 귀부(三幕寺龜趺 유형문화재 제93호) 안양 석수동 마애종(安養石水洞磨崖鍾 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 석실분(石水洞石室墳 기념물 제126호) 등이 소재해 있고 주요 사찰로는 안양의 대표 사찰인 삼막사를 비롯하여 망월암 상불암 염불암(사) 안양사 수도사 등이 있다 특히 옛 안양사는 신라 효공왕 4년(900)에 왕전에 의해 장건된 사찰로 안양의 시명(市名) 동명(洞名)의 기원이 된다 또 삼성산을 비롯하여 학무봉 호암산 등의 수려한 산세와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안양 시민의 휴식지이자 서울근교의 위락지이다 지리적으로 관악전절역과 경수산업도로가 남 북으로 관통되어 교통이 편리하여 석수주공아파트 한도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동의 전제면적 중 86.6%인 7.98km²가 개발제한 구역이다

공공기관은 석산공업개발사업소(석수1동 99-20)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삼성초등학교(석수1동 169)가 있으며 아파트로는 주공 삼신 장미공영 한도 백조1차 백조2차아파트가 있다

석수1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9.22km² 세대수 5,017세대 인구수 14,886명 인구밀도 1km²당 1,614명이다 석수1동사무소(1976.7.15 건립 부지면적 274m² 연면적 275.54m²)는 석수1동 182-17에 있다



석수동 수영장 통정 안양풀장으로 불리운다
(1960년대 전우회 회원 이응식 제공)

석수동(석수1 석수2 석수3동 포함)은 1932년 이곳(삼성전)에 수영장을 건설하면서 관악산과 삼성산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산명수려(山明秀麗)한 절승지(絶勝地)라 하여 석수동 수영장(石水洞水泳場)이라 했는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수영장 명칭을 취해 '석수동(石水洞)'이라 칭하였다

11) 석수2동 (石水2洞)

석수2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정조 19년(1795) 음력 윤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



석수2동사무소(1996 석수2동사무소 제공)

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칭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됐다 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 다시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2리 3리(安養邑 新安養二里 三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충훈부(忠勳府) 꽃재이(花倉洞) 등의 재 지역을 '석수2동(石水二洞)'이라 하였으며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따라 광명시 소하1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0년 1월 1일 시조례 제1000호에 의거 충훈부지역을 석수3동으로 분동해 석수2동에서 분리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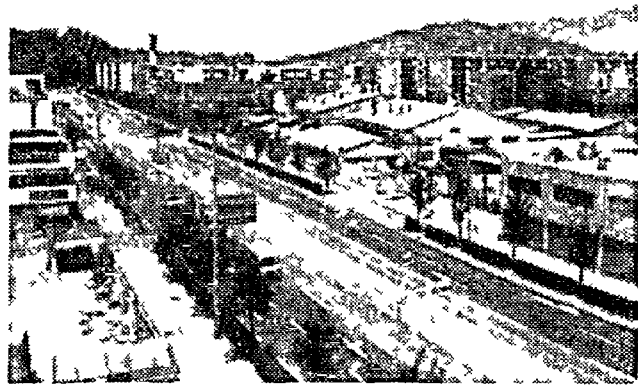
■ 석수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倭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 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2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二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79 4 28 안양시 석수2동(安養市 石水二洞)
- 1987 1 1 광명시 소하1동 일부지역 편입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0 1 1 충훈부 지역 석수3동으로 분동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옛 안양촬영소 주변(1993)★

석수2동은 동(東)으로 석수1동 서(西)로 광명시 일직동 남(南)으로 석수3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및 광명시 일직동과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꼬쟁이(花倉洞) 벌터(坪洞) 신촌(新村) 연현(彦峴) 등이 있다 안양 서북단에 위치한 석수2동은 지금의 안양



육교 일대가 예전에는 산세가 높고 푸미진 곳이어서 서울로 가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이 이곳을 지나치자면 산적이나 강도들에게 수난을 겪을만큼 험준한 곳이었으나 구한말에 경부선의 철도부설로 고개가 낮추어졌고 이어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교통의 편리로 점차 취락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안양육교는 1905년 을사조약이 조인된 지 5일 후인 동년 11월 22일 민족의 원흉 이등박문(伊藤博文)이 기고만장하여 수원지방에 유람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안양출신 원태우(元泰祐)지사에게 돌맹이 세례를 받아 지옥을 당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광명시 일직동과 접경한 벌터마을은 1960년대 초에 경기도 종축장이 들어서면서 폐동되었으나 경기도 종축장이 1970년대에 다시 경기도 광주로 이전되자 폐허화되었으며 안양전변과 만안로변에 자리잡은 신촌은 1956년 수도영화사에 의해 안양촬영소가 설치되어 한 때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본 고장으로 각광을 받던 곳이었다 또 꽃재배지로 유명했던 꼬쟁이 마을은 아파트단지와 주택지로 상전(桑田)이碧海(碧海)되었다 공공기관으로는 관악파출소(석수2동 266) 석수소방과출소(석수2동 295-14) 석수우체국(석수2동 314-12) 안양전화국 석수분국(석수2동 320-1) 관악역(석

수2동 241) 석수역(석수2동 422-3) 이 교육기관으로는 연현초등학교(석수2동 산134-4)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는 석수2동(석수2동사무소)새마을금고 안양농협석수지소 한일은행 석수출장소가 있다 기업체는 17개업체가 있으며 아파트는 관악 럭키동삼 한신 무림 세우아파트가 있고 문화재는 안양문화의 상징인 만안교(유형문화재 제38호)가 있다



시흥군 공설운동장이 위치에 있던 신존일대(1971)

석수2동은 수도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여 서울 광명시와 인접해 있으며 관악 석수역 등과 제2경인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의 남부를 연결하고 특히 동 전체 가구의 65%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석수2동은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3 43km² 세대수 9 909세대 인구수 29 776명 인구밀도 1km²당 8 681명이다 석수2동사무소(1980 1 29 건립 부지면적 632 2m² 연면적 518 24m²)는 석수2동 265-807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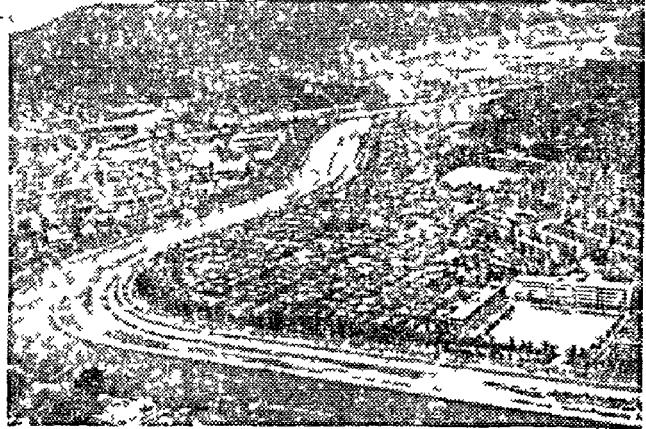
12) 석수3동 (石水三洞)

석수3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정조 19년(1795) 음력 윤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 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정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가 다시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3리(安養邑 新安養三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1동을 분동해 중훈부 화장동 등의 제 지역을 석수2동(石水二洞)이라 하였으며 이어 1989년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석수2동 중 중훈부지역을 분동해 '석수3동(石水三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 석수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 노현 (倭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 (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전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전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 (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新安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新安양3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79 4 28 안양시 석수2동(安養市 石水二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0 1 1 안양시 석수삼동(安養市 石水三洞)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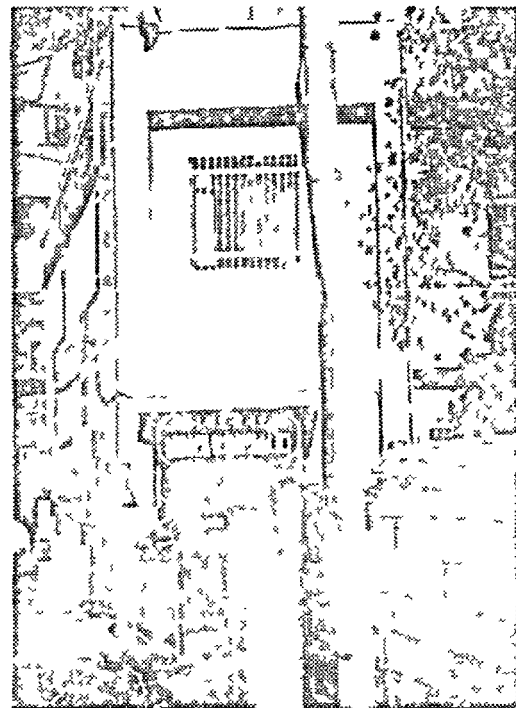
석수3동은 동(東)으로 안양2동 석수2동 서(西)로 광명시 일직동 남(南)으로 박달1동 박달2동 북(北)으로 석수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충훈부(忠勳府)가 있다 안양시의 박달동 석수동 등이 속한 조선시대 시흥군 유일의 기관인 충훈부란 관아가 소재해 있던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밤의 명산지로 1950년대에는 화훼와 고등소채로 부(富)를 이루었다가 1983년 도시계획에 따라 깨동되자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더우기 시내버스(삼영운수) 2 2-1 6 6-1 6-3 8 8-1 9 등 9개 노선이 운행되어 교통은 원활한 편이다 주공아파트는 2단지(201동 ~ 224동)와 3단지(301 ~ 310동)로 되어있고 영광 우성 로얄 극동 태건 등의 빌라와 연립주택이 뿔뿔히 들어서 신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푸른산 등 자연적 휴식공간으로 깨끗한 환경과 휴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석수초등학교(석수3동655)와 안양중학교(석수3동 752)가 있고 기업체는 삼영운수 1개업체이다

석수3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69km² 세대수 5,766세대 인구수 18,363명 인구밀도 1km²당 26,613명이다 석수3동사무소(1991.3.9 건립 부지면적 844m² 연면적 495.72m²)는 석수3동 600-3 4이다

13) 박달1동 (博達一洞)

박달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박달리(衿川縣 縣內面 博達里)였다가 제22대 정조 때(1795)만안교를 가설한 후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始興縣 縣內面 博達里)로 되었다가 고종 때(1895)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始興郡 郡內面 博達里)로 개칭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라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박달리(安養邑 博達里)로 되었고 다시 1964년 1월 1일 호현동(虎峴洞) 지역을 박달1리로 그 외 지역을 박달2리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박달동(博達洞)'이 되었다



박달1동사무소(1996)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6.28 공포)에 따라 박달동을 분동해 '박달1동(博達一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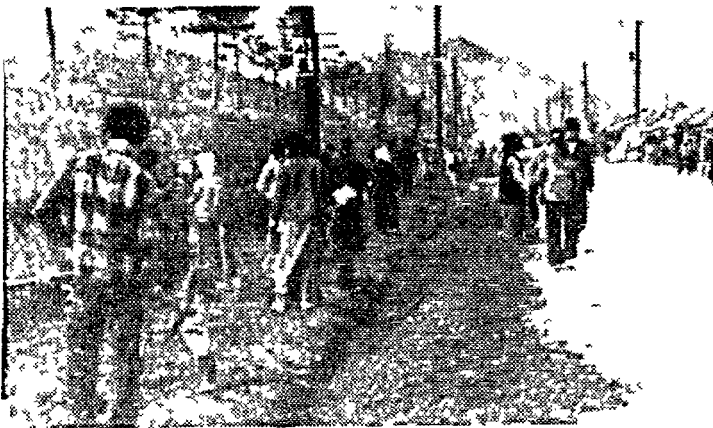
■ 박달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倭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
(始興縣 縣內面 博達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1914 3 1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始興郡 安養邑 博達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1 2리(始興郡 安養邑 博達一 二里)
- 1973 7 1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박달1동(安養市 博達一洞)

박달1동은 동(東)으로 안양2동 안양3동 서(西)로 박달2동 남(南)으로 안양3동

박달동 박달로 주변 왼쪽 축대 위는 대농단지임(1970년대)★



북(北)으로 석수3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박달1동사무소 동남쪽(구 대농단지 초입)에 어수정(御水井)이란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물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전 정조대왕이 수원화산능행을 하기 위하여 안양에서 잠시 휴게하다가 갈증이 나

자 이 우물물을 마셨다고 전해질 만큼 안양일대에서는 수질이 가장 우수하여 금성방직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본래 박달1동사무소는 일대는 먹해이들이라고 불렀는데 박토여서 농사짓기에는 적합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인 1937년경 박달2동 붓골 살던 권공선(權公先 시흥시 산현동 출신으로 알려짐)이 경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 건설로 마을이 폐동되자 농사를

짓기 위해 지금에 박달1동사무소 부근에 처음으로 정착한 후 일제말엽부터 차차 민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달1동은 서안양의 중심동 역할을 하는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밀집주거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낙후지역이 잔존해 있다 그것은 기관과 교육시설의 부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기업체는 20여업체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93km² 세대수 6,930세대 인구수 21,060명 인구밀도 1km²당 22,645명이다 박달1동사무소는 박달1동 19-1에 있다

14) 박달2동 (博達二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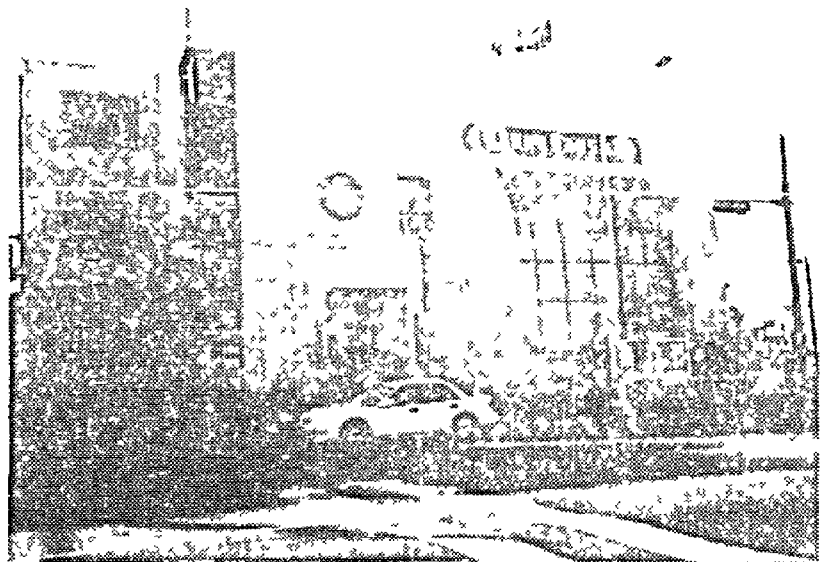
박달2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진현 현내면 박달리(衿川縣 縣內面 博達里)였다가 제22대 정조 때(1795)만안교를 가설한 후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始興縣 縣內面 博達里)로 되었다가 고종 때(1895)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始興郡 郡內面 博達里)로 개칭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라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박달리(安養邑 博達里)로 되었다가 다시 1964년 1월 1일 호현동(虎峴洞)지역을 박달1리로 그 외 지역을 박달2리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따라 박달동을 분동해 '박달2동(博達二洞)'이 되었다

■ 박달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仍伐奴縣)

박달2동사무소(1996)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금양현(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
(始興縣 縣內面 博達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始興郡 安養邑 博達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1 2리(始興郡 安養邑 博達一 二里)
- 1973 7 1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박달2동(安養市 博達二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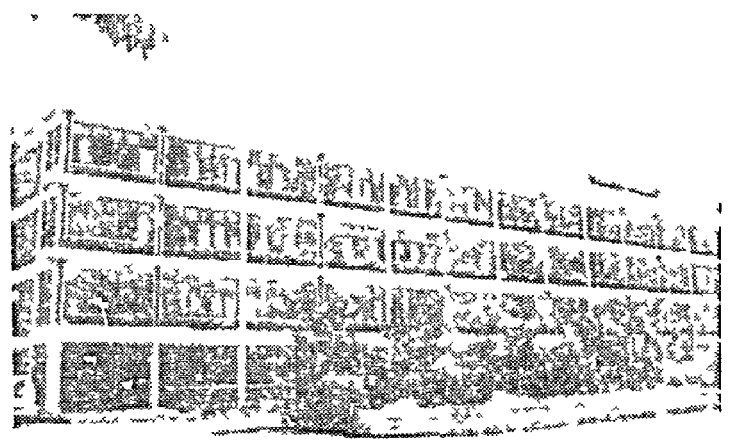
박달2동은 동(東)으로 박달1동 서(西)로 시흥시 목감동 남(南)으로 안양3동 북(北)으로 석수3동 광명시 일직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능골(陵谷) 동수암(東秀岩) 막상골 미름물 범고개(虎峴) 붓골(筆洞 富谷) 삼봉마을(三峯洞) 샛터말(新基村) 선녀골(仙女谷) 양회다리 웃말(上村) 웃박달리(上傳達里) 친목마을(親睦洞) 핏골 등이었으나 동수암 막상골 미름물 선녀골 양회다리 웃말 웃박달리 핏골 등은 군용지건설로 폐동되었다

안산 시흥 광명 인전의 서부관문인 박달동은 지금의 박달삼거리에서 곤두레미 고개에 이르는 제지역은 수리산과 무쇠봉 등의 산세와 땅이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해 농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지역서 일찍부터 취락이 발달되었으나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 평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의 건설로 동수암을 비롯한 취락은 모두 폐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후령군(厚寧君) 엄정구(嚴鼎耆) 엄황(嚴惶) 엄성(嚴星) 등의 묘 및 구만(충신)의 정문(旌門) 등 선현묘와 문화재가 일실되었다 이 군용지의 건설로 이곳을 거쳐 안산지방을 왕래하던 도로는 폐쇄되고 박달삼거리에서 호현(범고개) 시흥시 목감동을 잇는 우회도로(박달로)가 신설되었다

박달2동은 근교 영농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이 많은 관계로 다른 동(洞)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안양전과 박달전을 끼



박달로와 노루표페인트 공장(1970)★



명문교인 안양고등학교(1993)★

고박달로 등 교통의 발달로 만도기계(주) 삼아알루미늄(주) 대한케인트잉크(주) 동서유리공업(주) 등 90여개의 유수의 공장이 속속 건설되면서 공장지대로 변모되기 시작했고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승리아파트 신안아파트 금호아파트 삼신아파트 신한아파트 등으로 농촌지대에서 시가지로 점차 일선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시설이 단계적으로 풀려 주택 또는 공업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은 박달파출소 1개소에 금융기관 1개소 교육기관은 박달초교(박달2동 128-7) 안양고(박달동 144-3)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 박달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6.9km² 세대수 4,621세대 인구수 15,538명 인구밀도 1km²당 2,251명이다 박달2동사무소(1995. 7. 19 건립 부지면적 467m² 연면적 813.83m²)는 박달2동 124-7의 13에 있다

박달동의 '박달'은 '밝다' 즉 '밝은 산' 또는 '밝은 땅'의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머리'나 '뒀'의 옛말로 봄이 좋을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이 '박'이 '받'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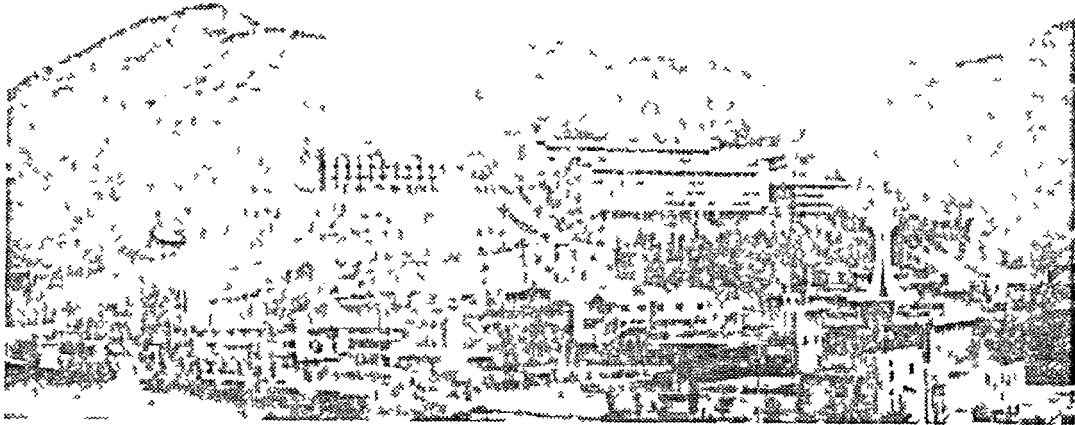
받 > 발 > 밝 > 박(또는 받) > 박

지금의 말의 '박치기'란 말을 보면 '박'과 '치기'가 합해져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박'은 곧 '머리'를 나타낸다 '머리로 받다'라고 할 때의 '받다'는 '받(머리)'에서 파생한 동사이다 '이마 팍' '대갈팍'에서의 '팍'도 '박'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박달'은 '머리 산(頭山)'의 뜻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높은 산'의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배우리「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1994 74~75쪽 참조>

5) 비산1동 (飛山1一洞)

비산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1리(安養邑 飛山1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 중 수푸루지(林谷洞 林川)지역을 '비산1동(飛山一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임곡동 전경(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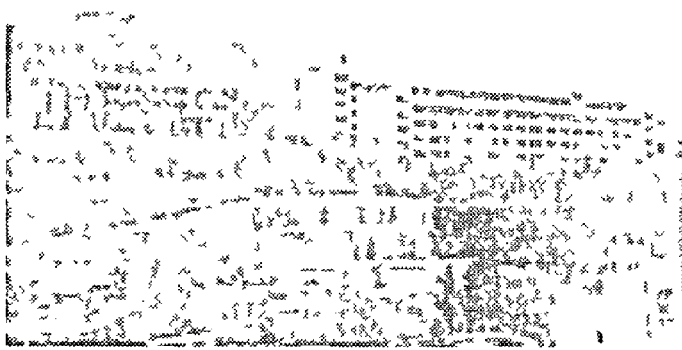


■ 비산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전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10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1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一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9 9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비산1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안양1동 남(南)으로 비산2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수푸루지(林谷洞 林川)가 있다



대림전문대학 전경(1993)★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집단주거지인 비산1동은 이곳의 중심마을인 수푸루지란 지명이 의미하듯이 산림이 우거진 산간지대였다가 조선 중기에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이었던 심기원(沈器遠)이 부진(沈諫)의 묘를 대림전문대 뒤에 쓴 후 후손인 정송 심씨가 묘하에 정

작하면서 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 후 관악로와 경수산업도로의 개설과 주공아파트(2단지)가 건립되면서 동세(洞勢)가 급격히 신장되었지만 지은지가 20여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아파트)이 낡아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내의 아파트는 주공아파트가 54개동에 2 638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성아파트가 8개동에 295세대 장미아파트가 2개동에 40세대 그밖에 원진 기오 성도 덕산 등의 아파트가 각각 1개동씩 모두 116세대가 입주하였다 기관으로는 비산파출소(비산1동 459-1) 1개소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대림전문대(비산1동 526-7) 동초등학교(비산1동 산133-1) 등이 있으며 또 평화보육원(비산1동 산136) 비산복지관(비산1동 510-5)과 금융기관도 상업은행 비산동출장소(비산1동 550-1)과 비산1동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82km² 세대수 6 512세대 인구수 19 374명 인구밀도 1km²당 10 645명이다 비산1동사무소는 비산1동 459-3에 있다

유적으로는 안양유일의 향교지(鄕校址)와 류정현(柳廷顯 영의정) 심간(沈諫 정

풍군수) 등의 선현 묘가 있다 비산동은 예로부터 농악이 유명했다 인근지방에서 농악하면 으레 날미(飛山)를 연상할 만큼 이곳의 농악은 널리 알려졌다 이 날미농악이 1995년에 제 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굴상을 수상했고 이어 1996년 9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날미농악」이 어떤 농악인가를 알아본다

날미농악의 배경

이승연

날미 - 한자로는 飛山 이라고 쓴다

오나라의 비산동은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날미는 현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부근에 있던 구리 고개에서 보쪽 능선을 따라 동쪽 지역을 안날미(內飛山)라 기하고 그 서쪽지역을 밖날미(外飛山)라 칭했다 날미는 지형적으로 명산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천혜의 삶의 터전이다

마을 앞의 다라니들은 일명 만마지가들 이라고 칭할 만큼 광활한 농경지였다 현재는 평촌 신도시 구역에 편입되어 아파트군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안양을 대표하는 곡창지였다 날미농악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수가 없지만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종2년(1865) 경복궁 중건 때 부역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자 잡가 하였는데 전국 각처에서 모인 농악대 가운데 날미농악대의 기량이 단연 으뜸이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장원농악이란 별명이 붙여져 인근에

서는 농악하면 날미농악대를 떠오르게 하였다 한다 특히 을희 2년(1908) 순종황제로 부터 하사받은 농기(農旗)를 마을 사람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 이 농기



날미농악(1996)

는 70×50cm 정도의 적색천에 중앙에는 다시 50×30cm 정도의 흰색천을 붙이고 중앙에는 중서로農商工部라 쓰여 있고 그 우측 상단에는 隆熙二年'이라고 썼으며 그 좌측에는 京畿直果川郡 上西面 飛山里라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농기는 신임이 두터운 마을의 인사가 소중히 간직했다가 마을의 행사가 있거나 농번기에 농악 놀이가 거행되면 주민들은 농기 앞을 함부로 왕래하지 않고 큰 절을 하는 등 외경시 하였다 더

우기 6 7월경 다라나들에서 김맬때 흉을 돌우고 피로를 덜기 위하여 칠때와 김매기가 끝난 후 농신(農神 농기)의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가 벌어질때에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 합세하여神明나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듯 명성을 날렸던 날미농악도 일제가 강점한 후 1920년대에 이르러 간악한 일제의 탄압으로 주민간의 단합을 한다는 이유로 농기가 회수되고 농악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이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그동안 안양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날미농악의 복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야 결실을 보게되었다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안양 고유의 문화특성을 되살리고 나아가 안양의 옛 놀이 문화를 재현함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1995 9

비산동의 안양종합운동장 뒤편에 '날미'라는 긴 등성이 있는데 이 등성이가 이른 골짜기의 안쪽에 있는 것이 '안날미'이고 바깥쪽(지금의 큰 길쪽)에 있는 것이 '밖(박)날미'이다 '날미'는 등성이가 길게 늘어져 '널미' 또는 '늘미'로 불렸던 것이 모습 변화를 일으켜 정착된 것인데 이 '날미'가 '날아가는 뫼'처럼 들려 한자로 비산동(飛山洞)이 된 것이다 안날미는 한자로 내비산(內飛山)이라 하고 밖(박)날미는 외비산(外飛山)이라 한다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 1994 70쪽 참조>

그러나 한글학회가 발간한 『한국지명총람』 경기도 안양시편에 '날미(비산) 비산동과 석수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00 4m 새가 나는 모양이라 함'이라 하여 산명(山名)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옛 문헌은 물론 향토 원로들도 그러한 산명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비산동(리) 정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먼 옛날에는 비산동 일대가 허허벌판이었는데 하루 밤을 자고나니 어디에서인가 산이 날아와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산(어떤 산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음)을 비산(飛山)이라 했다는 것이다

16) 비산2동 (飛山二洞)

비산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을 중 달안동(達安洞) 샘모루(泉隅) 희성촌(喜星村)등의 제 지역을 '비산2동(飛山二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된후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되었고 다시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로 비산2동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되었으며 이어 1992년 10월 1일 내무부 승인 제892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 비산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 (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3 1 사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西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2동(始興郡 飛山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비산3동(飛山三洞)분리
- 1992 5 1 부흥동(復興洞)분리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비산2동사무소(1996)

비산2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안양7동 남(南)으로 부흥동 북(北)으로 비산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샘모루(泉隅) 희성촌(喜星村)등이 있다 주공아파트(1단지)를 비롯하여 삼익 미릉 진흥 임곡 등 아파트가 밀집한 비산2동은 안동 권씨가 정착한 이래 문화류씨 진주 강씨 등이 세거해 왔는데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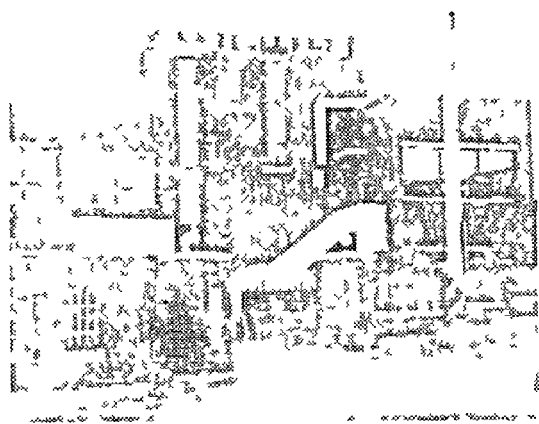
비산2동 전경(1989년 석우회 회원 최장선 촬영)

은 지금의 수도군단 초입 학의전에 큰 보(덕보)를 막아 농사를 지을 정도로 수답(水畝)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수답(天水畝)이었다. 농사짓기에는 보잘것 없는 땅이었으나 예로부터 안양의 금소반(金小盤)이라 하여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실업가 박흥식(朴興植)에 의해 비행장 건설이 계획된 바 있었고 1989년 신도시 평촌지구에 80ha가 편입되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안양중앙초등학교(비산2동 423) 등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비산지소(비산2동 571-1) 수협 비산동출장소(비산2동 422-13) 비산2동 3동 새마을금고(비산2동 414-7)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46km² 세대수 4,790세대 인구수 15,078명 인구밀도 1km²당 32,778명이다. 비산2동사무소는 비산2동 418-13이다.

17) 비산3동 (飛山三洞)

비산3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



비산3동사무소(1996)

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이 되었고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2동이라 칭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비산2동 중 안날미(內飛山) 마장골(梅谷洞) 구름울(雲谷洞) 등의 제 지역을 '비산3동(飛山三洞)'이라 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 비산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묵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西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2동(安養市 飛山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비산3동(安養市 飛山三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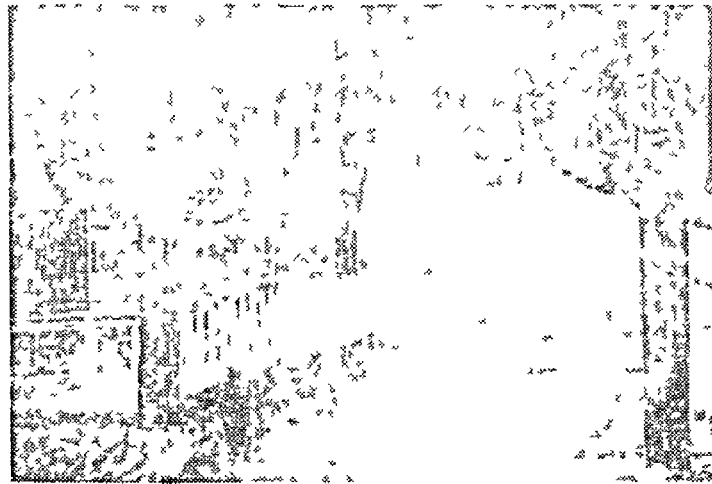


비산3동은 동(東)으로 관양1동 과천시 갈현동 서(西)로 안양2동 석수1동 비산1동 남(南)으로 달안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안날미(內飛山) 마장골(梅谷洞) 구름울(雲谷洞) 등이 있다

관악산 남쪽에 자리한 비산3동은 군사보호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 동 전체면적의 80%를 육박할 만큼 개발의 편차가 심한 곳이며 수많은 문화유적이 도시화로 파괴 또는 일실되었다 석수1동과 접경지역인 불성사 초입은 12세기 ~ 14세기의 정자 가마터와 14세기의 백자 가마터가 있으며 마장골과 103번 시내버스 중점 부근에 관아와 구류장이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비산초등학교 부근에

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었던 심수경(沈守慶)이 관직에서 물러나 만년을 보낸 퇴로정(退老亭) 역시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통사찰로 불성사가 현존하나 관악산 일대에는 현재 많은 절터가 방치되고 있는데 파괴되기 전에 학술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현 묘는 이석근(李石根 익평부원군) 이종용(李從龍 양전현령) 이정용(李廷龍 감찰) 이기(李岐 장언방(張彦邦 한성부관윤) 등의 묘가 있다. 비산3동은 지리적으로서는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전체의 주거지



관악산산림욕장(1990년대)▲

역으로 관악산 산림욕장을 비롯하여 매천약수 불당약수 상불당약수 설전약수 신매천약수 장수약수 충의약수 등의 약수터와 안양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이 소재해 있어 안양 관내에서는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다.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종합운동장(비산3동 1023)이 있고 교육기관은 비산초등학교(비산3동 315-1)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비산동지점(비산3동 360-17) 중소기업은행 비산3동지점(비산동 1031-10)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5.54km² 세대수 8,727세대 인구수 27,357명 인구밀도 1km²당 4,944명이다. 비산3동사무소는 비산3동 318-79에 있다.

18) 부흥동 (復興洞)

부흥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상서면 외비산리(果川縣 上西面 外飛山里)라 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상서면 비산리(果川郡 上西面 飛山里)로 개정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



부흥동(1993)★

(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의거 비산동이 되었다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의거

비산동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의거 비산2동(飛山二洞)이 되었다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1992 5 1) 시 조례 제1161호에 의거 '부흥동(復興洞)'이 신설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에 따라 부흥동을 부흥동 달안동(達安洞)으로 분동되었다

■ 부흥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일동(安養市 飛山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부흥동(復興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달안동(達安洞) 분리

부흥동은 동(東)으로 달안동 서(西)로 호계2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비산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청구 벽산 한양 신성 주공 성원 관악타운 부영 등 주거용 아파트 72개동이 있는 공동 주택밀집지역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나 임대아파트가 489세대나 되어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시기)
청구아파트	은하수	1104	6	502	'92 6 15
벽산아파트	은하수	1103	9	620	'92 5 31
한양아파트	은하수	1103-9	5	716	'92 8 20
신성아파트	은하수	1103-4	8	508	'92 11 7
주공아파트	관악	1102-9	3	480	'92 8 27
성원아파트	관악	1102-7	7	790	'92 9 29
관악타운아파트	관악	1102	24	1800	'92 11
부영아파트	관악	1102-4	10	796	'93 10



부흥동은 부흥사의 사명에서 유래하였다 (1978)★

교육기관으로는 부흥초등학교(비산동 1102-8) 부흥중학교(비산동 1102-1) 부흥고등학교(비산동 1102-2)가 있고 금융기관은 상업은행 평준출장소(비산동 1102) 한일은행 평준출장소(비산동 1102) 농협 부흥지소(비산동 1102-7)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 부흥동은 면적 0.50km² 세대수 7,084세대 인구수 23,340명 인구밀도 1km²당 46,680명이다 부흥동사무소는 비산동 1103-1에 있다

부흥동이란 동명은 현 부흥동 서쪽 경수산업도로변(비산2동 576-7)에 '부흥사(復興社)'란 공장이 있었는데 그 후 1984년 그 자리에 부흥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관내에 있는 교명을 부흥초교 부흥중 부흥고로 명명하자 입주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흥동(復興洞)'이라 정하였다

19) 달안동 (達安洞)

달안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을 달안동(達安洞) 샘모루(泉隅) 회성촌(喜星村) 등의 제지역을 비산2동(飛山二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5월 1일(1992 5 7 공포)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비산2동을 비산2동 부흥동(復興洞)으로 분동한 후 동년 10월 1일 시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1993 5 20 공포)에 따라 부흥동을 분동해 '달안동(達安洞)'이 되었다.



■ 부흥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전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일동(安養市 飛山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부흥동(復興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달안동(達安洞) 분리

달안동은 동(東)으로 부림동 서(西)로 부흥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비산3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신도시개발 이전에는 샛갯들(筓垵) 또는 다라니들(달안이들 만마지기들)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으로 경춘신도시 개발지역내에 서는 가장 큰 들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박흥식(朴興植)이 안양3동 소재 조선직물을 인수한 후 이 일대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활주로 공사를 실시하다가 이듬해(1945) 광복이 되자 중단되었다 1989년에 마을이폐동되자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밀집지역으로 변모되어 주거용 아파트 41개동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전세의 70%가 임대아파트여서 주민대다수가 서민계층에 속하고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관계로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의 결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시기
한양샛별	샛별단지	비산동1109	5(601~605동)	766	
		비산동1109~4	7(606~612동)	1 266	
		비산동1109~6	6(613~617)	825	
		비산동1109~3	3(618~620)	68	
		비산동1101~2	8(101~108)	1 531	
		비산동1101~6	8(201~208)	963	
		비산동1101~8	5(301~305)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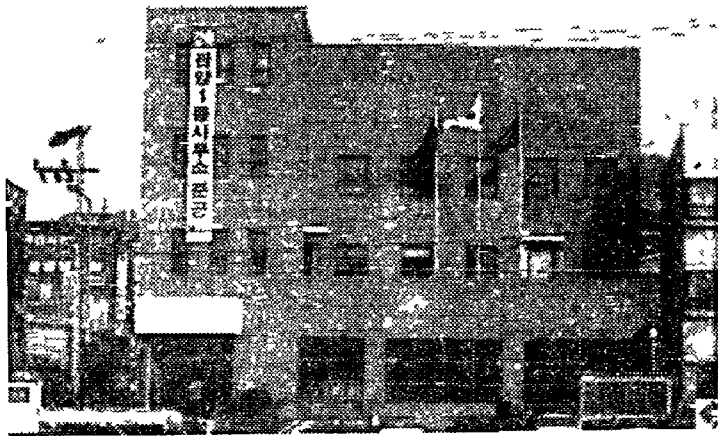
공공기관으로는 동안구청(비산동1111)을 비롯하여 동안구보건소(비산동1111) 평촌우제국(비산동 1110) 경춘전화국(비산동 1110-2) 등과 교육기관으로는 달안초등학교(비산동 1109~1) 희성초등학교(비산동1101~1)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비산동1101) 등과 금융기관은 농협 안양시 지부(비산동1113~1)가 있다 1996년 9월 30

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44km², 세대수 6 154세대 인구수 18 218명 인구 밀도는 1km²당 41 404명이다 달안동사무소는 비산동1101~5에있다

달안동(達安洞)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넓은 들판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전에 비가오면 가릴 것이 없어 샓갓을 쓰고 달아나야 비를 피할 수 있다하여 '샓갓들(笠坪)'이라고 불렀다 즉 빨리 달아나야 한다고 하여 다라니 또는 달안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자화 하면서 '달안동(達安洞)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땅 이름학회 배우리회장은 "달안(다라니)의 한자식 지명은 월내(月內)이다 이것은 '달안'의 '달'과 '안'을 각각 월(月)자와 내(內)자로 뜻 옮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달'은 산(山)이 아니고 '들(野)'이다 따라서 '달안'은 '들가운데'를 뜻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20) 관양1동 (冠陽一洞)

관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1동 2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



관양1동사무소(1994)▲

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 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동 중 가운데말(中村) 골안(谷內) 동편(東便) 말무덤이(馬墳洞) 부림말(富林洞) 뽕말(秀村) 셋말(閔

村) 오촌말(吳村洞) 등의 세 지역을 '관양1동(冠陽一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 관양1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1동(安養市 冠陽一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관양1동 전경(1970)★

관양1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및 과천시 갈현동 서(西)로 비산3동 남(南)으로 관양2동 부림동 북(北)으로 과천시 갈현동



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가운데말(中村) 골안(谷內) 동편(東便) 말무덤이(馬墳洞) 부림말(富林洞) 뺨말(秀村) 샌말(間村) 오촌말(吳村洞) 등이 있다

›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관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관아가 있는 과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고개 셋을 넘어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삼현원정리(三峴院井里)라 부르기도 하였던 곳으로 시제 실시 후 관악로의 개설과 안양 6지구 구획정리로 현대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유입이 급증한 신흥도시 주거지역이긴 하나 개발 제한 구역이 동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기관은 동안양세무소(관양1동 1451) 동안파출소 관양우체국 등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관양초등학교(관양1동1407) 관양중학교(관양1동 1407-3)가 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관양1동새마을금고(관양1동 1406-38) 관양동새마을금고분소(관양1동 1406-38) 안양농협관양지소(관양동 143-9) 경기은행 관

양동출장소(관양동 1406-47) 축협관양지소(관양동 1406-49) 서울은행 관양동지점(관양동 1403-4) 조흥은행관양동지점(관양동 1384-26) 주택은행 관양동지점(관양동 1458-1) 동화은행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3 20km² 세대수 10 718세대 인구수 32 918명 인구밀도 1km²당 10 286명이다 관양1동사무소는 관양1동 1432-15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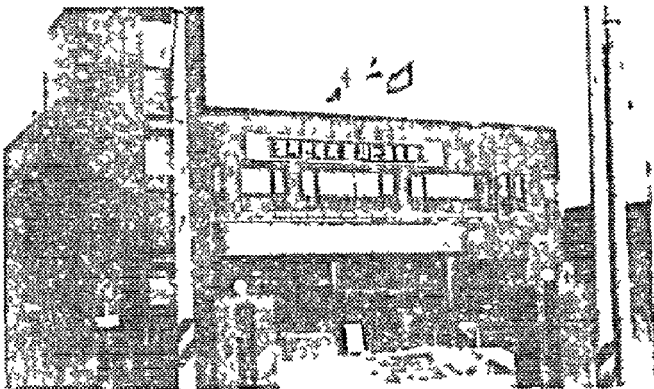
이곳은 예로부터 명당길지(明堂吉地)로 안명세(安名世 鴻문관정자) 오문서(吳文瑞 학자) 오익서(吳益瑞 학자) 오병선(吳炳善 교육자) 류계장(柳季장 점지중주부사) 류녕(柳寧 전주관관) 이후달(李厚達 능주현감) 홍헌표(洪憲杓 제신부장관) 이면훈(李冕薰 기업가) 오상(吳尙 순전부사) 오윤경(吳胤慶 산음현감) 등의 묘소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화장 또는 이장됨) 뽕밭(秀村)의 관악산 산신제는 40여년간 면면히 내려온 동제(洞祭)이다

관양1동(이하 관양2동 포함)의 유래는 1948년 지금에 관양동1407에 관양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교명을 지을때 관양동 출신 오병선(吳炳善 1904~1979)이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학교'라 하여 관악산의 '관(冠)'자와 양지의 '양(陽)'자를 취해 관양초등학교라 하였는데 그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교명을 취해 '관양동(冠陽洞)'이라 하였다

21) 관양2동 (冠陽二洞)

관양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정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

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 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 그 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동 중 인덕원과 신흥동 지역을 '관양2동(冠陽二



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관양2동 부림동(富林洞)으로 분 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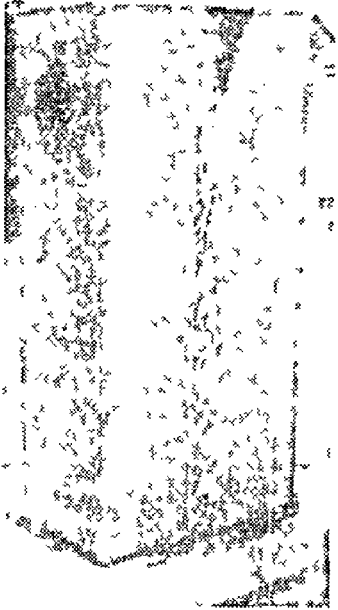
■ 관양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2동(安養市 飛山二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부림동(富林洞)분리

관양2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서(西)로 부림동 남(南)으로 평촌동 평 안동 북(北)으로 관양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신흥마을(新興洞) 과 인덕원(仁德院)이 있다 안양동부에 위치한 관양2동은 서울 과전 및 의왕시의 접 경지역으로 동안출장소를 비롯한 관청과 대한전선 크라운제과 삼성물산 등 기업제 가 운집한 중소기업 지대이며 인덕초교 등의 교육기관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공동주택 지역이다 또 평촌신도시지구에 60ha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 정 - 사당간 지하전철이 경유하는 미래의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서울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교통로여서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의 명 장 이순신(李舜臣)과 후기에는 정조가 부왕의 묘를 참배하기 위하여 지나던 중 일시 휴계(休憩)하기도 해 일찌기 선술집 주막 등이 성행하였다 문화유적으로는 조선시 대 공용(公用)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인덕원(仁德院)이 있었으

이태응 선정비(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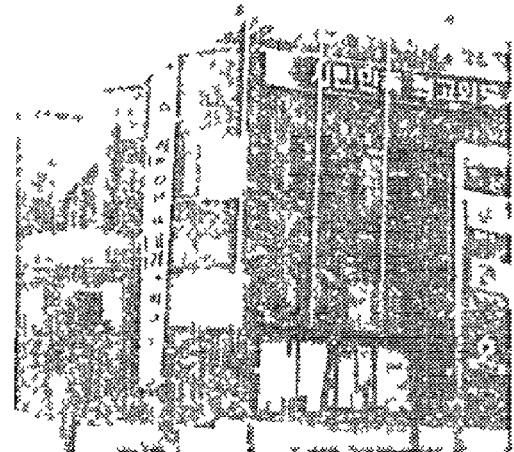
나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폐치되어 그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인덕원 주막 선술집 등은 도시화로 주택 여관 등이 들어서 그 흔적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모되었는데 다만 인덕원 사거리와 인덕원교 사이 노변에 고종 3년(1866)부터 고종 5년(1868)까지 과천현감을 지낸 이태응(李泰應)의 송덕비가 있을 뿐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인덕원초교(관양2동 210) 관양여자중(관양2동 1482) 등이 있고 금융기관은 관양2동 새마을금고(관양2동 1491-9) 중소기업 은행인덕원지점(관양2동 1488-35) 국민은행 인덕원지점(관양2동 1474-21)가 있으며 기업체는 대한전선(관양2동 785) 크라운제과(관양2동 810) 삼성물산(관양2동 922)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81km² 세대수 5,208세대 인구수 14,965명 인구밀도 1km²당 8,267명이다 관양2동사무소는 관양2동 1482-3에 있다

22) 부림동 (富林洞)

부림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 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2동이 된 후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조례 제1245호로 '부림동(富林洞)'이 되었다

■ 부림동의 변천일람



부림동사무소
(1996 부림동사무소 제공)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을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을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 2동 (安養市 冠陽二洞)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부림동(安養市 富林洞)

부림동은 동(東)으로 관양2동 서(西)로 달안동 남(南)으로 평안동 북(北)으로 관양1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양2동에서 분리한 지역으로 본래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신도시 건설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 주거용 아파트 7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상호 간에 위화감이 상존한 지역이지만 1996년 11월 11일에 안양시청(관양동1590)과 안양시의회(관양동1590)가 들어섰고 안양교육정(관양동1592) 소방서(관양동1592-1) 세무서(관양동1592-2) 법원(관양동1588-18) 검찰청(관양동1593) 평촌시립도서관(관양동1589-2) 부림동우체국(관양동1605-3) 평촌전철역(관양동1608-1) 시설관리공단(관양동1591-1) 국토개발연구원(관양동1591-6) 토지공사평촌사업단(관양동1591-6) 근로복지공단(관양동1591-6) 한국감정원(관양동1588-11) 시설안전관리공단(관양동1588-11) 석유개발공사(관양동1588-14) 국립기술품질원(관양동1599) 등 안양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되면 행정발

신도시 개발이전의 부림동지역
왼쪽에 대관전선이 보인다(1970년대)★



전의 요람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또 교육시설로는 부림초등학교(관양동1587-3) 부안초등학교(관양동1586-2) 부안중학교(관양동1588-5) 부림중학교(관양동1586-1)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관양동1587-2) 등이 이미 개교를 보았고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6개소(농협 산업은행 대동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증권 2개소(신용보증기금 한신증권) 언론기관으로 조선일보사가 있고 시장 상가도 6개소가 있으며 공원으로 평촌공원과 학운공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3개소가 위치해 있어 주거지역으로도 더할나위 없는 이상적인 곳이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
신리아파트	한가람단지	관양동1589-1	9	1 068	'92 7
두산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6	6	436	'92 11
삼성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5	10	708	'95 4
한양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	8	952	'95 6
세경아파트	한가람단지	1589	11	1 293	'96 10
부영아파트	공작단지	1588 1588-13	13	1 710	'93 3
성일아파트	공작단지	1587-5	7	750	'93 2
럭키아파트	공작단지	1587	8	766	'93 6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85km² 세대수 7,253세대 인구수 23,480명 인구밀도는 1km²당 27,623명이다 부림동사무소는 관양동 1588~1에 있다

부림동(富林洞)은 당초 관양동의 '관(冠)'자와 관악산의 '악(岳)'자를 취해 관악동(冠岳洞)이라고 정했다가 여론에 따라 개정하였는데 동명의 유래는 산림이 울창하고 부자가 많았다는 관양1동의 자연취락명인 부림말(富林洞)에서 취한 것으로 예전에 부림말 사람들이 현재의 부림동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연유에서 동명을 취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작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부림말 사람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마을명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면 후일에 관양1동의 부림말 지역의 인구증가로 별도의 행정동이 설치되면 동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현 부림동내에 부림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가 있는데 부림(富林) 부안(富安)은 안양 과천지역의 고려시대의 별호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러한 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이웃 과천시에 부림동 사무소가 있는데 안양 과전을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혼돈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

23) 평촌동 (坪村洞)

평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일동(一洞) 및 이동(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평촌동을 평촌동 평안동(坪安洞)으로 분동되었고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따라 동의 일부가 의왕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시 조례 제1338호에 의거 동의 일부가 호계동에 편입되었고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로 동의 일부가 관양동에 편입되었다

■ 평촌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西二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평안동(坪安洞) 분리
- 1994 12 26 평촌동 일부 의왕시에 편입
평촌동 일부 호계동에 편입
- 1996 1 1 평촌동 일부 관양동에 편입

평촌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서(西)로 평안동 귀인동 남(南)으로 의왕시 오전동 북(北)으로 관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민배기 벌말 등이 있다 이곳은 서울 과전과 수원 안산 군포를 연계하는 안양시의 동부지역으로 동일방직(평촌동1) 삼화왕관(평촌동 126-1) 오뚜기식품(평촌동 160) 등 크고 작은 업체가 밀집한 경공업지역으로 평촌신도시개발지구에 2.4km가 편입되었다 금융기관으로는 안양농협평촌지소(평촌동 93-4) 평촌동새마을금고(평촌동 93-2)가 있다

동일방직 전경(1993)★



평촌동은 신도시 개발계획 이전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벌말 부근의 공업지대 외에는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곳이나 일제강점기에는 안양의 여타 지역보다 주민들이 단합되어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주(禁酒)운동을 전개해 소비절약을 통하여 교육 및 자선 공익사업의 기금을 마련하여 애국운동을 했다 즉 평촌동 주민들은 1924년 4월 4일 금주동맹회(禁酒洞盟會)를 10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했는데 동 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제 음주를 단행할 事
- 冠婚喪祭와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품목으로 대응할 事
- 본회에 불참하는 자는 農事時에 相助를 거절할 事
- 제1조를 위반하여 음주한 자는 초범 50전 재범 10원을 징수하고 집에서 술을 담그는 자는 초범5원 재범 10원의 벌금을 징수할 事
- 제2조를 위반하여 관혼상제에 술을 사용할 때는 초범 10원 재범 20원의 벌금을 징수할 事

당시 임원은 회장에 김진영(金晉永) 부회장에 서기선(徐基先)이었다

문화유적으로는 벌말에 지석묘 6기 신말에 4기 귀인에 1기 갈미에 1기 등 모두 12기와 귀인에 초기 백제주거지 등이다

평촌동은 넓은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벌말(坪村)이라 했는데 1973년에 시제가 실시되면서 마을 이름을 위해 '평촌동(坪村洞)'이라 칭했다 평촌이 세인에게 널리 알려지기는 아무래도 신도시개발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근의 산본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평촌에 대해 주거지로서의 삶의 터전으로 길지나 흥지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다 그러면 평촌은 어떤 곳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택지개발로 바뀐 「관」이 오히려 길상 / 평촌신도시

- 최영주 / 문화부장 대우 -

한강 이남의 산들은 대개 그 뿌리를 속리산에 두고 있다 속리산맥이 경기도안성에서 충남을 형성하는 금북정맥과 한남정맥으로 갈라진다 한강이남의 경기도 산들은 이 한남정맥의 가지들이다 안성에서 북진하는 산맥이 용인에 와서 보개산을 만들고 여기서 왼쪽으로 뻗은 가지들이 서북진해 광교산을 만드니 그 아래가 수원시다 광교산에서 다시 왼쪽 청룡의 맥이 오봉산을 만들고 이어 수리산으로 치고 올라가 안양 동쪽 군포 안산 부천 등을 만든다 광교산의 오른쪽 백호는 북진 백운산을 만들고 다시 더 올라가 국사봉 청계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맥은 관악산 줄기와 연결된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서편이 안양시와 의왕시 동편이 성남시의 분당지역 그리고 청계산 서편이 과천시이다

이렇게 보면 광교산과 수리산 백운산과 청계산 그리고 관악산을 연결하는 산맥의 좌우에 수도 권 도시들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 일대에는 북으로 흐르는 안양천 이외에는 큰 강이 없다 이에 비해 산들은 매우 왕성한 기운을 뽐내고 아산 마치 무리를 지은 학들이 서로 울음을 다투는 형세(군학쟁명형)다

안양시 평촌지구는 이 무리지은 학들이 내려와 노닐던 벌판이다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문전옥답이 6공시절 주택2백만호 건설사업에 따라 택지로 바뀌었다 17만명을 수용하는 거대 집단취락지구로 면모가 일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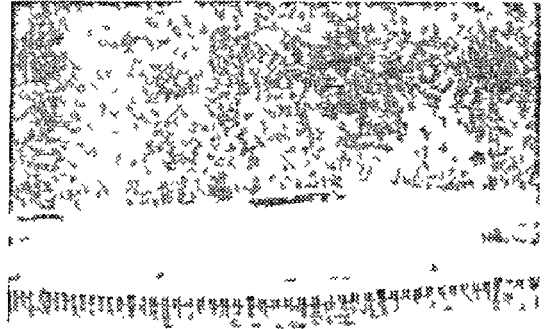


오봉산(1987)

평촌은 백운산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봉우리를 만든 모락산(마치 옛 선비가 쓰던 정

자관처럼 생긴 산이다)이 주산이다 청룡은 오봉산에서 수리산으로 건너간 맥이 맑고 있고 의왕시와 과천시 경계를 이르는 오른쪽 능선이 백호가 된다 또 안산(앞산)은 관악산과 관악산의 서쪽맥인 삼성산이 맑고 있다

자유공원내에 있는 지석묘(1990년대)◎



문의 흐름은 보면 백호쪽 백운산 밑에서 발원한 학의천(안양천 상류)이 관양동과 경계선 이루며 감고 돌아가 왼쪽 오봉산 뒤 지지대 고개에서 발원한 맑은 내와 비산교 앞에서 만나 안양천이 되어 서북쪽으로 빠져 나간다 전체적인 국은 서보강편이다 양대지로서는 제대로 법도를 갖추고 있다

모락산(1988)



그러나 땅의 이같은 성격과는 달리 택지개발은 하면서 판을 바꿔버렸다 배산임수보다는 남향은 선호하는 일반적 기호는 더 높이 산 것이다 그 결과 주산은 물론 청룡과 백호가 바뀌고 안산도 바뀌었다 만약 평촌들이 즐었다면 이것은 바깥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택지)이 넓고 앞산으로 바뀐 모락산이 높지 않아 흠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학의천과 맑은 내가 국의 뒤에서 만나 이른바 후합금을 이룬다 학의천은 수전현무(물로써 주산이 되는 격)가 되거 맑은 내는 조래수(앞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 부를 기억한다)가 되니 오히려 판을 바꿔 남향을 취한 것이 주택단지에는 길상이 된 셈이다

전제 단지는 모락산 밑에 있는 배수지고지(자유공원)를 기준으로 삼분할 수 있다 모락산과 배수지고지 사이의 샘마을 지구와 서쪽 무궁화마을 동쪽의 굽마을이 그것이다 샘마을은 모락산이 유과(정자과)을 이루고 삼성산 일부와 멀리 수리산 정상이 탐랑필봉을 이루니 교육기관이 들어설 자리다 현재도 이곳은 학교시설이 중심을 이룬다 다만 과협처(맥이 건너가는 곳)이므로 지기를 누르는 건물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좋다

무궁화마을 지역은 비산동 뒤의 마치 창고처럼 생긴 산을 베개로 삼고 맑은 내가 조래수를 이루니 이 일대의 부를 주관하는 격이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와 비슷한 형국을 보여준다 꿈마을 지역은 배수지고지의 동쪽맥이 뱀어내려 이 일대의 분수령을 이룬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흠이 있지만 모락산이 분명하게 보여 재주있는 문인 배출되는 곳이다 귀인이란 동네이름도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의 경우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단독택지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개 그 단지의 중심혈을 차지하고 있다 평촌지역도 무궁화마을과 꿈마을 사이에 있는 단독지구가 중심혈이다 그 모습은 귀인이 막 동네를 나가는 형국이다 크게 보면 학모양의 산들이 좌우에 나래를 펴고 있고 붓끝 모양의 문필봉이 겹겹으로 이를 감고 있다 또 뒤에는 삼성산이 창고의 모습을 띠고 있고 앞의 모라산은 삼태 유관이다 문화 예술인을 비롯해 교육기관이 들어 갈만 한 곳이다 * 도읍말=수강 유증근(이수학회고문) - 「중앙일보」 1995년 2월 2일자 -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80km² 세대수 1,693세대 인구수 5,005명 인구밀도 1km²당 6,256명이다 평촌동사무소는 평촌동 138-1에 있다

평촌동은 너른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벌말(坪村)이라 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마을명을 취해 '평촌동(坪村洞)'이라 하였다

24) 평안동 (坪安洞)

평안동사무소 현판식(1993)★

평안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下西面 一洞 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



면 이동리 (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조례 제 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평촌동을 분동해 '평안동(坪安洞)'이 되었다

■ 평안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평안동(安養市 坪安洞)

평안동은 동(東)으로 귀인동 서(西)로 부림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평촌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평촌신도시의 교육 교통 공원의 중심지역으로 중앙공원 등이 입지한 쾌적한 환경지역이며 병원 백화점 전철역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는 평안파출소(평촌동 896-3) 일반폐기물소각장(897-1) 농협 평촌지점(평촌동 899-7) 평화은행 평촌지점(평촌동 898-6) 신한은행 평촌지점(평촌동 897-7) 복합화력발전소(평촌동 897-2) 지역난방공사(평촌동 897-3) 등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동안초등학교(평촌동 898-1) 평촌초등학교(평촌동 899-

4) 평촌중학교(평촌동 899-5) 동안고등학교(평촌동 898-3)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67km² 세대수 9,096세대 인구수 29,764명 인구밀도는 1km² 당 44,423명이다 평안동사무소는 평촌동 896-4에 있다



평안동 열병합발전소(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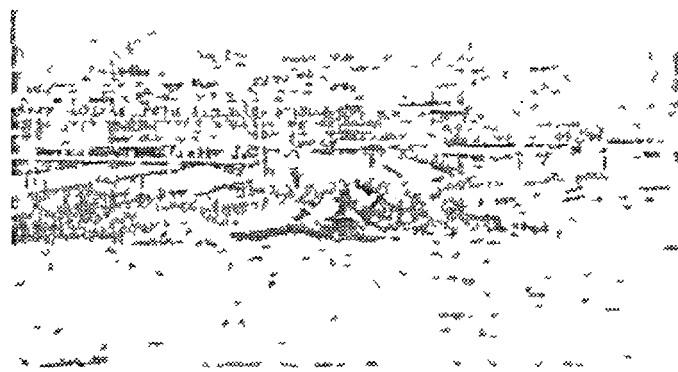
평안동(平安洞)은 평촌지구의 '평(坪)'자와 안양의 '안(安)'자를 취해 '평안동(平安洞)'이라 칭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개동)	세대수	입주일
부영아파트	조원단지	평촌동 896-2	13	2 069	'92 12
한양아파트	조원단지	897-5	11	999	'93 12
럭키아파트	조원단지	897-7	9	756	'93 12
대원아파트	조원단지	898-6	9	870	'93 9
대림아파트	조원단지	898-2	12	1 171	'93 11
성원아파트	조원단지	898	5	441	'93 12
세경아파트	조원단지	896-2	6	660	'96 5
현대4자아파트	향촌단지	899-2	8	629	'93 3
현대5자아파트	향촌단지	899-7	11	879	'93 5
롯데아파트	향촌단지	899	9	619	'93 3

25) 귀인동 (貴仁洞)

귀인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下西面 一洞 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귀인 지식모 주변(1990)◇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평촌동을 분동해 평안동(坪安洞)이라 했다가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에 의거 평안동을 분동해 '귀인동(貴仁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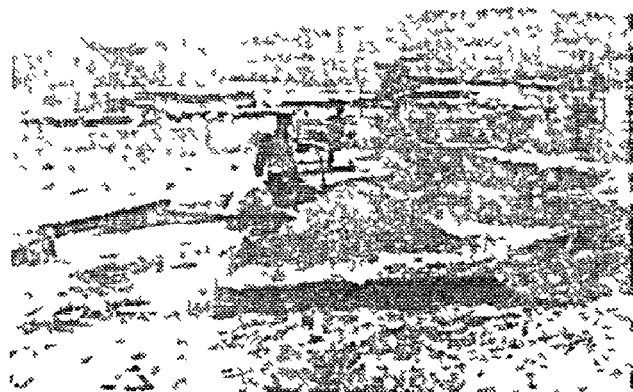
■ 귀인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평안동(安養市 坪安洞)
- 1994 7 1 안양시 귀인동(安養市 貴仁洞)

귀인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평안동 남(南)으로 신촌동 북(北)으로 의왕시 내손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평촌지구 내에서는 평촌동의 별말동과 함께 옛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백제시대 주거지 유적 발굴 모습(1990)◇

이곳은 역사적으로 안양지방에 서는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최근 학계조사 결과 밝혀졌다 즉 1990년 명지대박물관이 평촌지구 지표조사에서 찌르개 굽개 등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귀인 마을에서 출토한 것이다 동 박물관



관에서는 또 마을 안쪽 해발 60m 구릉정상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와 백제 초기의 주거지(면적 24 25㎡)도 함께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귀인동은 평촌신도시 내에서는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중 상류 계층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로 유통산업의 요충지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공동체의식의 결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는 라이프 금호 한신 현대 우성 건영 동아아파트가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위치	입주일	가구수
계			3 126
라이프	평촌동932-6	'92 9	548
금호	932-2	'93 9	250
한신	932-4	'93 9	566
현대7차	932-7	'93 11	386
우성	933	'93 11	422
건영2차	933-6	'93 10	196
건영3차	933-7	'94 4	386
동아	933-7	'94 4	372

교육기관으로는 귀인초등학교(평촌동 932-1) 민백초등학교(평촌동 933-1) 귀인중학교(평촌동 914) 백영고등학교(평촌동 932)가 있고 금융기관은 서울은행 평촌꿈마을 영업점(평촌동 932-6) 보람은행 평촌지점(평촌동 933-6) 조흥은행 평촌지점(평촌동 900-1) 상업은행 꿈마을점(평촌동 933-7)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61km² 세대수 4 464세대 인구수 15 021명 인구밀도는 1km² 당 24 624명이다 귀인동사무소는 평촌동 933-4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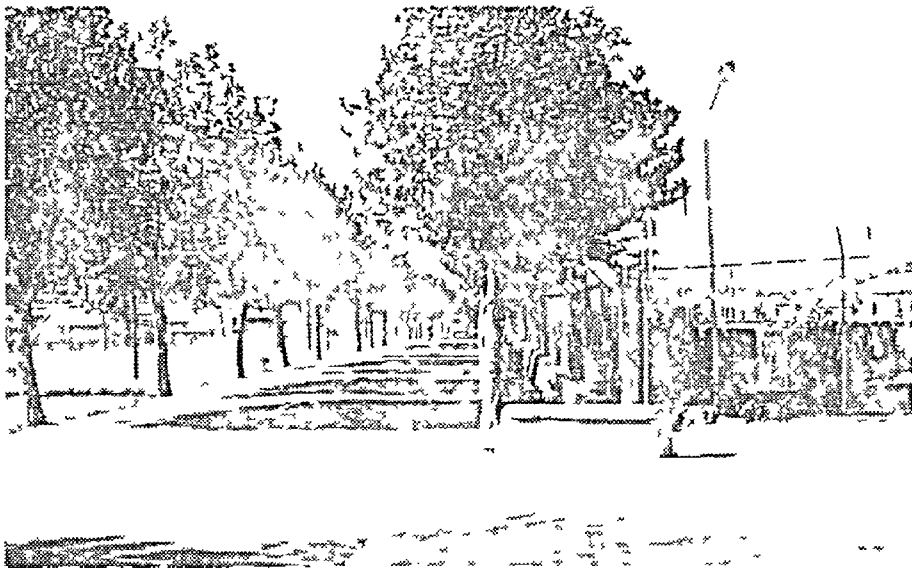
귀인동(貴仁洞)은 옛 평촌동의 자연취락인 귀인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마을에 들러 머물다 갔다고 하여 '귀인(貴仁)'이란 마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26) 호계1동 (虎溪一洞)

호계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상서면 도양리(果川縣 上西面 道陽里)지역이었다

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果川郡 下西面 道陽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했다가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호계리(安養邑 虎溪里)로 칭했고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2리(安養邑 虎溪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덕고

LG전선(우측 1972)



개 금성마을 지역을 '호계1동(虎溪一洞)'이라 칭하였다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에 의거 호계동을 호계1동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되었다

■ 호계1동의 변천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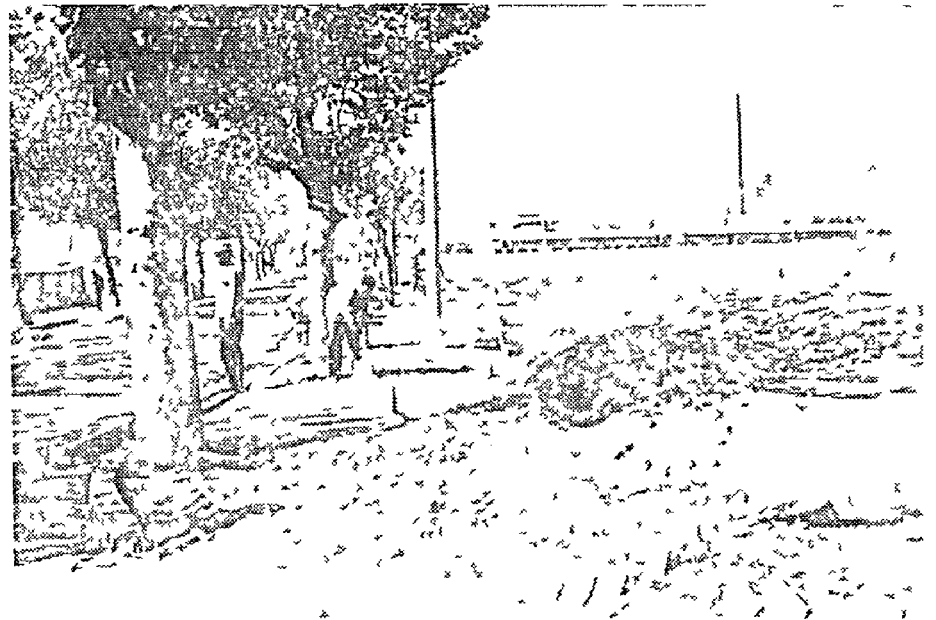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果川郡 下西面 道陽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2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二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1동(安養市 虎溪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갈산동(葛山洞)분리

호계1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군포시 금정동 남(南)으로 호계3동 북(北)으로 호계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금성마을(金星村)과 덕고개(德峴)가 있다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1동은 조선시대 만안로가 개설된 이래 1930년대에는 서울-과전-남양간을 관통하는 도로 및 경수산업도로의 개설로 서울 과전 수원 안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발달로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삼신아파트 일신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한 곳으로 중앙제지 LG전선 등 60여 업체가 소재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평촌신도시의 배후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호계

옛 금성통신 주변(1972)

동지점(호계1동 964-8)
 주택은행 호계동지점(호계1동 1003-5) 중소기업은행 호계동지점(호계동 960-1) 한일은행 호계동지점(호계1동 960-2) 농업 호계동지점(호계1동 995) 대동은행 안양지점(호계1동 949-10) 동남은행 안양지점(호계1동 1003-9) 안양농협 호성지소(호계동 961-11)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3km² 세대수 7 219세대 인구 수 22 008명 인구밀도 1km²당 21 366명이다 호계1동무소는 호계1동 1003-7에 있다

■ 호계1동 아파트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시기)
주공아파트	주공	999-983	25	770	'84 3
일신아파트	일신	999-25	6	192	'84 9
삼신아파트	삼신	992-1 990-5	4	216	'83 10
강남4차아파트	강남	951-4	1	66	'83 3
강남5차아파트	강남	945-1	1	72	'82 1
정도아파트	청도	997	4	44	'84 2
미성아파트	미성	995-9	2	30	'78 3
정호아파트	정호	944	2	16	'88 2

역사적으로 호계1동은 안양지방 최초의 개신교의 전래지로 알려지고 있다 1895년 보고에 의하면 덕고개 출신 허대진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신상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때 덕고개교회(감리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문헌에 따르면 1909년에 장로교회에서 인수하여 삼성(리) 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호계동(이하 호계2 3동 포함)의 유래는 예전에 방죽말(防築洞) 셋터말(新基洞) 안말(內村) 일대가 범(虎)이 많은 곳이라 하여 범계 즉(虎溪)라 칭한데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회장은 '범은 내'의 뜻인 '범내'가 '번내'로 되었다가 '범내'로 되어 한자의 '호계(虎溪)'로 바뀐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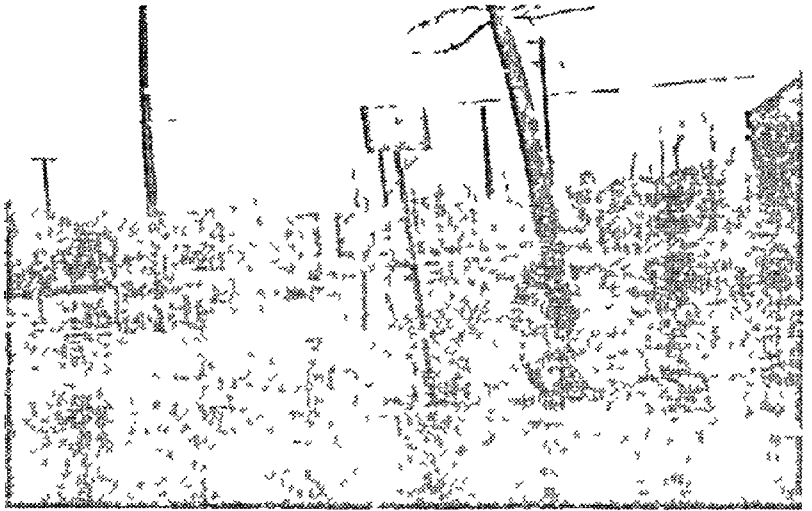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 1994 217쪽 참조〉

27) 호계2동 (虎溪二洞)

호계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지역이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果川郡 下西面 虎溪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칭했고 그 후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되었으며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

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그 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안말(內
 村) 방죽말(防築洞) 셋터말(新基洞)
 등의 세 지역을 '호계2동(虎溪二洞)'
 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호계2동을 호계2
 동 범계동으로 분동되었고 이어



호계1리 이정판(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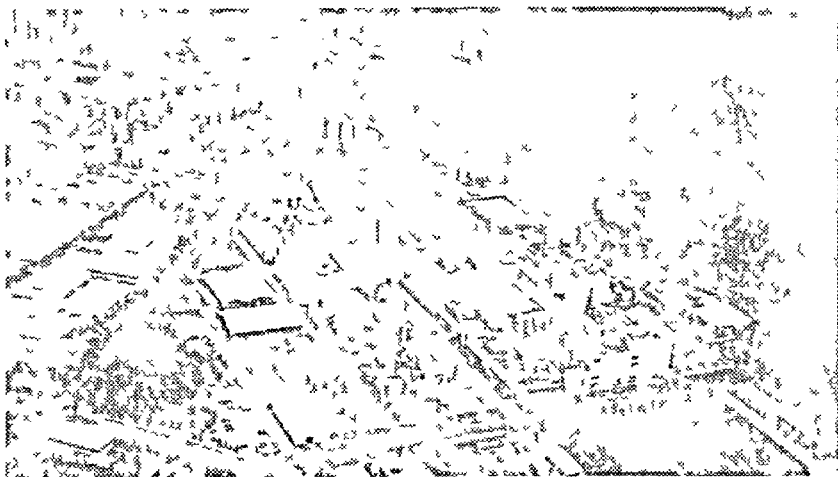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 호계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범계동 분리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호계2동은 동(東)으로 신촌동 서(西)로 안양8동 남(南)으로 호계1동 북(北)으

로 비산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안말(內村) 방죽말(防築洞) 셋터말(新基洞) 등이 있다 안양교육의 발상지인 호계2동은 동양나이론 신아화학 등이 운집한 경공업지역으로 강남 경남 대림 덕원 미주 옥산 현대 등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한 신흥개발지역이며 주민의 구성은 토박이가 다수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안양교육청(관양동 1592로 이전 예정) 한국전력 안양지점(호계2동 921) 전과연구소(호계2동 901) 등과 교육기관으로는 호계초등학교(호계2동 923-17) 호계중(호계2동 312-2) 호원초등학교(호계2동 338) 호원고등학교(호계2동 339) 등이 있다 기업체로는 동양나이론(호계2동 183-2) 등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출장소(호계2동 905) 제일은행 호계동지점(호계2동 943-2) 수협 호계



동양나이론 전경(1993)★

1동새마을금고 등과 아다는 현대 아파트(호계2동 914-40 11개동) 럭키아파트(호계2동 570 12개동)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과천면의 상서면사무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초기에는 안양면의 전신인 서이면사무소가 소재해 한 때는 관가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 안양 최초의 교육시설로 숙

종 42년(1716)에 창건되어 대원군 집정 때(1870) 서원절계령에 의해 훼손된 장강서원(또는 호계서원)과 옛 범계주민들이 풍류를 즐기던 소호정 및 일제강점기 초에 설립된 낙영학교 등은 비록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그 기록만 전해질 뿐이지만 이 곳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양교육의 발아지(發牙地)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호계2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43km² 세대수 7,194세대 인구수 22,840명 인구밀도 1km²당 15,972명이다 호계2동무소는 호계2동 933-18에 있다

28) 호계3동 (虎溪3洞)

호계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하서면 도양리(果川縣 下西面 道陽里)지역이었다

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果川郡 下西面 道陽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했다가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로 칭했고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2리(安養邑 虎溪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구 군포 방죽말 셋터말 안말 포도원마을을 '호계3동(虎溪三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경주산업도로와 만안로가 만나는 호계삼거리(1980)★

■ 호계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果川郡 下西面 道陽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2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二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5 11 15 안양시 호계3동(安養市 虎溪三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옛 호계리 뒷산에서 식수를 하고 있다(1978 4 5)

호계3동은 동(東)으로 의왕
시 오전동 서(西)로 군포시 당
정동 남(南)으로 의왕시 오전
동 및 군포시 당정동 북(北)으
로 호계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
으며 자연취락으로 구군포(舊
軍浦) 포도원(葡萄園)마을 등
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후기 정
조의 능행로인 서울 ~ 과전 ~

인덕원 ~ 수원을 잇는 과천행로와 서울 ~ 시흥(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 안양
~ 수원을 잇는 시흥행로가 교차되는 지역이며 호성초등학교 부근에 소재한 자진골
(자진구리)은 준향전의 이도령이 과거보러 갈 때 다니던 길이라고 전해질 만큼 전설
이 깃든 곳이며 지금의 안양시민방위교육장 뒤에는 예로부터 홀아비 5천명이 살 땅
이라고 구전되어오던 곳인데 1963년 안양교도소가 개소되어 옛 사람들의 지혜에 새
삼 머리가 숙여진다 또 구 군포사거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 초기(1920년대)에는
군포장(軍浦場)이 서던 곳으로 안양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안양시 남단의 관문인 호계3동은 서울 과전 수원 안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로 주공 경향 삼익 등 13개의 아파트단지과 18개의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가 밀집
된 지역이다 공공기관으로는 안양교도소(호계3동 458) 안양분류심사원(호계3동
770) 등과 교육기관은 호성초등학교(호계3동 820) 등이 있고 금융기관은 조흥은행
호계동지점(호계3동 811) 경기은행 호계동지점(호계3동 971-20) 수협 호계3동새
마을금고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75km² 세대수 5,765세대 인구
수 18,015명 인구밀도 1km²당 24,020명이다 호계3동무소는 호계3동 768-5에 있다

29) 범계동

범계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라 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되었고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호계리(安養邑 虎溪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호계동이 되었다 그 후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2동이 되었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 안출장소에 편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1992 5 1)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범계동이 되었다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에 의거 범계동을 범계동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되었다

■ 범계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안양시 범계동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신촌동(新村洞) 분리

범계동은 동으로 평안동 부림동 서로 호계2동 남으로 신촌동 북으로 달안동 부흥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선경 대우 우성 두산 경남 동아 신동아아파트 등 주거용 아파트가 70개동 있다

■ 아파트 현황

단지명	가구수	위 치	동수	세대수	입주일	비고
계	5,059	8개단지	70	5,882		임대 3 분양 5
1단지(선경)	480	1053-2	7	550	'92 11	분양
2단지(대우 선경)	994	1052	9	1 147	'92 3	임대
3단지(우성1차)	902	1052-3	10	1 051	'92 7	임대
5단지(우성3차)	683	1052-5	7	821	'93 3	임대
6단지(두산)	440	1054-6	10	510	'93 7	분양
7단지(우성2차)	466	1054-8	9	530	'92 9	분양
8단지(경남 동아)	516	1053-4	8	607	'92 10	분양
9단지(신동아)	578	1053-3	10	666	'94 7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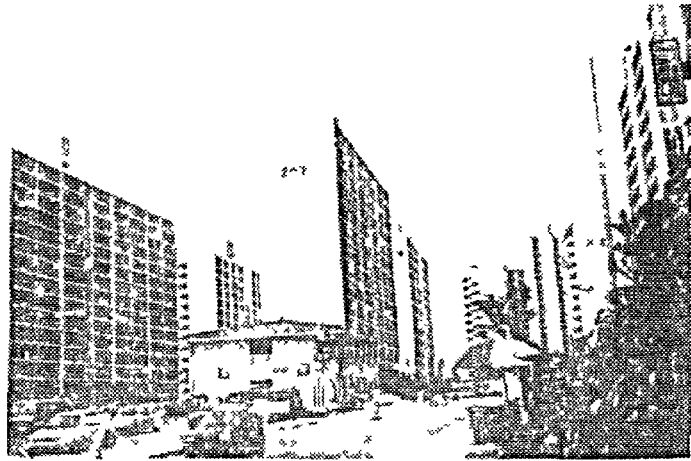
또 상가 금융 업무시설 등 중심상가지역으로 안양의 신상권의 중심지이며 범계역 경수산업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평촌신도시의 관문이다 주요공공기관으로는 범계파출소(호계동 1051-2) 범계소방파출소(호계동 1051-3) 범계전철역(호계동 1039-1 2)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범계초등학교(호계동 1052-1) 평촌초등학교(평촌동 402-13) 범계중학교(호계동 1054-5) 평촌고등학교(호계동 1054)가 있다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평촌지점(호계동 1046) 주택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1-1) 상업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9-4) 동화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1) 하나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0) 한일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51) 국민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2-1) 경기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4-8) 경안상호신용금고(호계동 1045-5) 경수종합금융(주)(호계동 1051) 한일투자신탁안양지점(호계동 1051) 한국투자신탁평촌지점(호계동 1047-8) 동아증권(호계동 1045) 동양증권(호계동 1045) 쌍용증권(호계동 1546-1) 등이 있다

범계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0.64km² 세대수 5,883세대 인구수 19,516명 인구밀도는 1km² 당 30,493명이다 범계동사무소는 호

계동 1051-1에 있다

아파트 숲을 이룬 범계동(1993)

범계동의 동명은 방죽말(防築洞) 안말(內村) 셋터말(新基洞)을 통칭해 일컫었는데 예전에 이곳 냇가에 범이 많았다 하여 '범계'라 불렀고 이를 한자화하면서 '호계동(虎溪洞)'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범계의 '범'은 우리말의 호랑이를 '溪(계)'



는 냇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几溪' '範溪'로 표기함은 온당치 않다 1992년 범계동을 신설할 당시 안양시로 부터 동명제정에 대해 자문요청이 있자 필자(이승언)는 범계동명은 한자명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누차 전명한 바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 발행하는 지도나 문서 등에 한자로 사용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동명(범계동)으로 명명된 것은 안양교육청내 학교명징선정위원회에서 범계초교 범계중을 선정한데 이어 1990년 안양시정자문위원회에서 지하철역명을 범계역으로 결정한 관계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대를 계승키 위했다고는 하나 이는 더욱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다 동일한 의미의 지명을 한자 한글로 분리해서 명명함은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해도 후세를 위해서는 바람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30) 신촌동 (新村洞)

신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지역이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果川郡 下西面 虎溪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라 칭했고 그 후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안말(內村) 방죽말(防築洞) 셋터말(新基洞) 등의 세 지역을 '호계2동(虎溪二洞)'이라 칭

하였다 1989년 5월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에 따라 호계2동을 호계2동 범계동으로 각각 분동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1월 15일 시조례 제1245호 (1993 1 15 공포)에 의거 범계동을 범계동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하였고 이어 1996년 1월 1일에 갈산동 일부지역이 경계 조정으로 편입되었다



신촌 제1호 지식묘 개석 모습(1990)◇

■ 신촌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안양시 범계동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신촌동(安養市 新村洞)
- 1996 1 1 갈산동 일부 편입

신촌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호계1동 호계2동 남(南)으로 호계1동 의왕시 오전동 북(北)으로 범계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1990년에 명지대 평촌지구 지표조사시 신촌마을에서 지석묘 3기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BC 10세기경인 청동기시대에 이미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수산업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정부의 신도시계획에 의거 전원 분양아파트로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중산층에 고학력 수준으로 밀집지역이긴 하나 아파트단지 옆으로 단독주택 내에 이른바 먹자거리(먹자골목)가 형성되어 50여 개의 음식점이 성업 중에 있다

아파트는 금호 진흥 건영 코오롱 효성 한양 경남 태영 등 53개동에 4천 319세대가 입주하였다 이들 아파트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촌동내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촌지석묘 유적 발굴조사 모습(1990)◇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시기
계			53	4,319	
금호	무궁화단지	1056	7	507	'92 8
진흥	무궁화단지	1056-6	6	386	'92 9
건영	무궁화단지	1055-1	6	536	'92 9
코오롱	무궁화단지	1055-1	6	533	'92 9
효성	무궁화단지	1055	6	482	'92 12
한양	무궁화단지	1055	6	474	'92 12
경남	무궁화단지	1057	8	665	'94 8
태영	무궁화단지	1075	8	736	'9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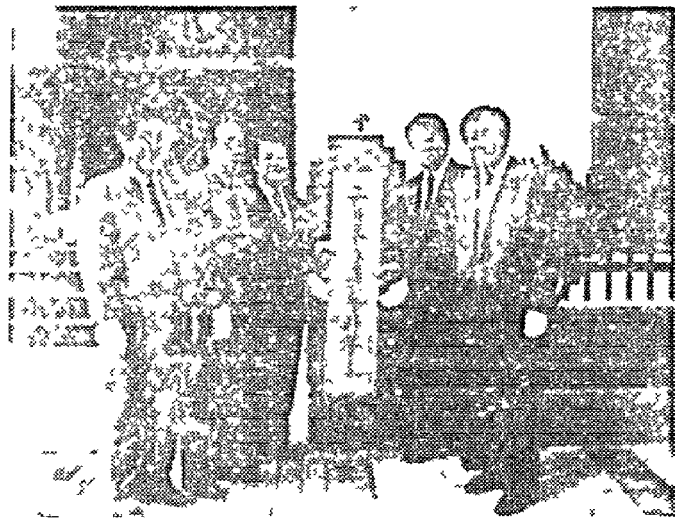
한편 교육기관으로는 신기초등학교(호계동 1056) 신기중학교(호계동 1075-1)가 있고 금융기관은 제일은행 경춘출장소(호계동 1058) 외환은행 호계동지점(호계동 1055-1) 부국증권(호계동 1045-5)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62km² 세대수 4,486세대 인구수 15,423명 인구밀도는 1km² 당 24,875명이다

신촌동사무소는 호계동 1056-3에 있다

신촌동(新村洞)은 풍양 조씨(豊壤 趙氏)가 처음으로 정착한 후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말(新村)"이라 칭했는데 그 뒤 신말을 중심으로 조성된 동이므로 '신촌동(新村洞)'이라 하였다

3) 갈산동 (葛山洞)

갈산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일동(一洞) 및 이동(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경춘동(安養市 坑村洞)이라 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하여 호계1동으로 되었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5월 20일 시조례 제1285호에 따라 호계1동을 분동하여 갈산동(葛山洞)이 되었고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1392호에 의거 동의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되었다



갈산동사무소 개관식(1993)★

■ 갈산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울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울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下西面 一 洞 二 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경춘동(安養市 坪村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1동(安養市 虎溪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안양시 갈산동(安養市 葛山洞)
- 1996 1 1 갈산동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

갈산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내손동 서(西)로 신촌동 남(南)으로 호계1동 북(北)으로 귀인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옛 자연취락으로는 갈미(葛山) 당살미(堂山尾) 등이 있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평촌신도시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의왕시와 접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샘마을단지로 쌍용 우방 임광 대우 한양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혼합구성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푸른 산과 자유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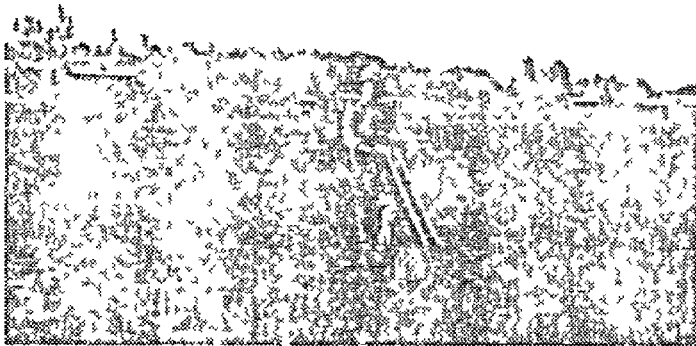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
쌍용	샘마을	호계동1117	8	384	'93 9
우방	샘마을	1116	8	488	'92 12
임광	샘마을	1115	8	390	'94 4
대우 한양	샘마을	1121	20	1072	'94 2

공공기관으로는 갈산파출소(호계동 1118-1)가 있고 교육기관은 안양남초등학교(호계동 1215) 덕현초등학교(호계동 1101) 신기중학교(호계동842-7) 대안중학교(호계동 1228) 대안여자중학교(호계동 1231) 경춘공업고등학교(호계동 1118-1)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미은행 평촌지점(호계동 1121)이 있다 1996년 10월 1일 현재의 현황은 살펴보면 면적 0.73km² 세대수 3,004세대 인구수 10,429명 인구밀도는 1km² 당 14,286명이다 갈산동사무소는 호계동 1118에 있다

갈산동(新村洞)의 유래가 되는 갈미는 본래 갈산동은 처음에는 호계1동의 자연취락명인 덕현동(德峴洞 덕고개)으로 정했졌으나 여론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광주군의곡면 손리(廣川郡 儀谷面 蒜里)에 속한 마을인데 1936년 서울 - 과천 - 남양을 연계하는 지금의 풍인로를 개설할 때 양쪽으로 갈라져 도로 동쪽지역은 의왕시 갈미로

서쪽지역은 안양시 갈미로 되었다 이곳은 정조의 화산능행의 노정이자 서울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통이자 분기점(分岐點)이었다 갈미는 길(道)이 갈라지다(分岐)라는 동사의 첫음절 갈~의 음차로 '갈미(葛山)'가 된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전의 갈산동의 농촌풍경(1970년대)